

텍스트의 무의식과 젠더적 욕망 - 『효풍』에 나타난 부자관계 모티프를 중심으로

박 정 순*

요약

이 논문은 염상섭의 해방기 첫 장편소설 『효풍』에 나타나는 부자관계 모티프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구성상의 특징과 그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하는 바와 그 의도와는 무관한 텍스트 자체의 작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무의식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여 텍스트적 효과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젠더적 욕망은 텍스트의 작용에 따른 구성적 결과물과 그 잉여라는 점에서 그것은 작가의 의도나 전략 속에 반영된 작가의 욕망이 드러워진 텍스트의 무의식으로 본다.

『효풍』은 여성주인공 헤란이 서사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남자주인공 병직이 여러 장에 걸쳐서 부재하다가 결말부에 다시 나타나 급작스럽게 문제가 해소된다. 이러한 결말 처리 방식은 작품의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한계로 평가받아왔다.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장의 대부분이 여성주인공을 중심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김관식을 전면화하여 다룬 9장과 10장은 설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의 남성성의 유대이자 부자관계 모티프의 변이확장으로서 '아버지의 딸'은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관계를 설정할 때 정신적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자발적 타자화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남성작가의 욕망은 텍스트의 무의식상에서 남자주인공의 침묵과 부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상적 여성의 구원 환상을 통한 젠더적 욕망으로 나타난다.

주제어: 효풍, 염상섭, 텍스트의 무의식, 젠더적 욕망, 부자관계 모티프, 아버지의 딸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 1 서론
- 2 훼손된 민족주의 남성성의 유대와 수치심
- 3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관계와 매개자로서 아버지의 딸
- 4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를 위한 자격 조건으로서 '공부하는 인간'
- 5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해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 『효풍』¹⁾(『자유신문』, 1948.1.1.~11.3. 총 200회 연재)에 나타나는 부자관계 모티프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성상의 특징과 그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하는 바와 그 의도와 무관한 텍스트 자체의 작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무의식은 작가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여 텍스트적 효과로 나타난다. 텍스트적 효과는 작가의 전략 및 의도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작품을 읽어내는 해석의 지평으로 나타난다. 작가의 의도와 전략은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작가의 의도와 전략이 텍스트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는 틈새에서 역설적인 의미가 생성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젠더적 욕망은 텍스트의 작용에 따른 구성적 결과물과 그 잉여라는 점에서 그것은 작가의 의도나 전략 속에 반영된 작가의 현실적 결핍과 욕망이 드리워진 텍스트의 무의식으로 본다.²⁾

해방기 혼란한 정국에서 염상섭의 『효풍』은 그의 만주로부터 귀환 후

1)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 1998. (이하 인용면수는 본문에 괄호표기)

2) 김동식,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민족문학사연구』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121~128면 참조.

완결된 첫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남현은 염상섭이 시대나 상황에 밀착한 가운데 일지를 쓰듯이 『효풍』을 연재했다는 점에서 『효풍』은 저절로 이데올로기 소설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³⁾ 『효풍』의 이념적 비전을 중도주의로 보는 연구로는 조남현, 김재용, 서형범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남현은 남자주인공 박병직이 “염상섭의 거울에 해당”⁴⁾한다고 보았고, 김재용은 『효풍』을 작가의 이념적 지향 및 정치적 의식과 관련지어 병직을 작가의 이념적 페르소나로 규정하여 중간파의 다양한 면모와 가능성을 논의했다.⁵⁾ 서형범은 작품의 중심 서사가 병직과 혜란의 연애담에 있고, 중립주의자로서 김관식과 조정원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로서만 다뤄짐으로써 서사의 중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작품 어느 곳을 통해서도 병직의 이념적 지향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 자체의 이념적 지향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서사전략적 차원에서 『효풍』의 형식상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는 조미숙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조미숙은 염상섭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직접적이고 주제의식이 강할수록 구성상의 허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며 『효풍』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했다.⁶⁾ 서사의 주도권이 여성 주인공에게 있다는 점⁷⁾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의 한 전범인 “이

3) 조남현, 「1948년과 염상섭의 이념적 정향」,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97면.

4) 조남현, 위의 책, 298면.

5) 조남현, 위의 책, 308면,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서형범, 「염상섭의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30.2, 2004.

6) 조미숙, 「『효풍』에 나타난 염상섭 서사전략 연구—일제 강점기 작품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84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412면.

7) 조미숙, 「『효풍』에 나타난 염상섭 서사전략 연구—일제 강점기 작품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84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401면; 이양숙, 「트렌스모던 공간으로서의 서울, 1948년—염상섭의 『효풍』의 현대적 의미」, 『도시인문학연구』10, 80면.

상화된 여성상”으로서 여성인물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었다.⁸⁾ 조미숙은 염상섭의 전반적인 작품에서 상류층 지식인 남성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효풍』에서 남성주인공 박병직의 내면묘사와 사회적 활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전의 남성 주인공들에 비해 병직에 대한 작가 염상섭의 거리가 멀고 병직의 존재감이 적다고 보았다. 김경수는 혜란의 현실안이 작가 염상섭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의식은 ‘병직’이라기보다는 ‘혜란’에게 가깝다고 보았다.⁹⁾

서사의 주도권이 여성주인공에게 있고 그 여성이 주체적인 인물이라는 판단¹⁰⁾은 표층적 텍스트 상에 드러난 현상만으로 본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작품이 말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는 텍스트의 무의식은 작품의 내용에 진술의 형태로 담길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작품의 생산조건”¹¹⁾이 된다. 이점에서 남자주인공의 침묵이나 대담 회피, 부제가 그저 남자주인공의 서사적 비중과 존재감이 적다는 현상에 근거한 결론도출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생존자 편향의 오류와 같은 동일한 결론을 반복 재생산할 수 있다.¹²⁾

8) 서형범, 「염상섭의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30.2, 2004, 79면.
 9) 김경수,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 일조각, 1999, 217면.
 10) 조미숙, 위의 논문, 413~414면.
 11) 신광현, 「텍스트의 무의식: 프레드릭 제임슨의 경우」, 『안과 밖』19.0, 2005, 99-123면.
 12) 생존자 편향의 오류(Survivorship Bias)는 일부 표본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통찰에 이를 수 없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면을 간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오류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서 귀환한 미공군 조종사의 전투기에서 보온 및 강화할 부분을 분석할 때 다수의 연구자들은 귀환한 전투기에서 총알이 가장 많이 박힌 날개와 꼬리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에 미공군 소속 통계학자인 에이브러햄 왈드는 살아서 귀환한 전투기에서 외상흔적이 가장 적은 몸통 부분을 보강해야 하며 그 부위를 맞은 전투기는 살아서 귀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브라이언 클라스, 서종민 역, 『권력의 심리학』, 웅진지식하우스, 2022, 77-80면 참조). 『효풍』의 작품 분석에 있어서도 표층텍스트에서 남성주인공의 침묵과 회피, 부제는 남성주인공의 존재감과 서사적 비중이 낮다는 현상적 결과 외에 그 이면에 작용하는 의미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계를 보이는 어정쩡한 여성 주체의 강조”¹³⁾나 “작위적”¹⁴⁾이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결말처리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구성상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¹⁵⁾되었다. 병직을 작가 염상섭의 이념적 분신으로 보고 이념적 전망을 암시한다고 볼 때 “작품 어느 곳을 통해서도 병직의 이념적 지향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작품 자체의 이념적 지향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¹⁶⁾이라는 평가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작품의 문제점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헤란이 작가의 의식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는 논의의 전개로 남성인물의 대담 회피와 침묵과 부재에 따른 텍스트의 잉여의 자리는 작품의 특징이 아닌 결함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자면, 병직의 이념적 지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효풍』이 작가적 ‘의도’ 차원에서 이념적 지향과 선택을 목표로 한 작품이 아닐 수 있음을 방증한다. 『효풍』의 중심서사를 병직의 이념 선택 과정이나 작가의 이념적 지향으로 보지 않는 견해로는 대표적으로 김종욱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⁷⁾ 이 연구에서도 병직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병직보다는 오히려 헤란이 작품의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인물이라는 견해를 보이며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의 범주화가 내포하는 비균질적 상황을 통해 염상섭이 구상했던 국가의 모습을 살펴

13) 조미숙, 위의 논문, 416면.

14) 김경수, 위의 논문, 220면.

15) 김경수, 「혼란된 해방 정국과 정치의식의 소설화: 염상섭의 『효풍』론」, 『외국문학』53, 1997, 233면;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26권, 여성문학학회, 2011, 246면;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217면;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 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間SAI』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210면.

16) 서형범, 앞의 논문, 78면.

17)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60, 2015.

본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는 동시에 본고에서는 염상섭의 『효풍』에서 현상으로서 텍스트의 표층에서 인물이 서사를 차지하는 비중과 서사를 주도하는 인물의 표면상의 주체성을 통해 작가의 의도와 전략을 판단하는 것에는 오류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작가의 의도와 그것이 지향한 결과로서 텍스트 사이에는 낙차가 있게 마련이다.¹⁸⁾ 염상섭은 “작품이 완성된 뒤에 제2자가 무슨 주의, 무슨 파라고 인정하거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일 것”이고 “작가로서는 관계가 없는 일”¹⁹⁾이라는 점에서 결과로서 작품과 작가의 거리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으나 해방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인 만큼 작가적 해명이 때로는 필요했음을 다음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금년에 들어서부터 『자유신문』에 『효풍』을 쓰고 있으나 해방의 민족적 감격을 쓰는 것은 아니다. 『효풍』은 해방 후의 남조선의 현실상이요, 신평속도요, 그들의 정치이념이나 생활태도를 엿보자는 데에 의도가 있을 따름이다. (중략)

해방 후 몇몇 단편을 쓴 것이 있다. 현 문단은 어떤 모로 보면 침묵의 문단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중략) 자기 만든 어떠한 기준이라 할지 목표라 할지 하여간 진중한 태도로 일관한 맥락을 잃지 않으면서 써왔다고 믿는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쓴 것이 「첫걸음」이요, 기자생활 일 년 후에 쓴 것이 「바쁜 이바지」, 「엉덩이에 남은 발자국」들인데, 이것은 『해방의 아들』을 거둔 것이다. (중략)

이상의 모든 단편은 이복에 취제한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테을

18)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17-128면 참조.; 김동식,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임화의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민족문학사연구』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121-128면 참조.
19) 염상섭, 「개벽」, 1925. 2, 52면(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290면 재인용.)

로기나 정치정세에 휘둘리기 싫기 때문에 어디까지 리버럴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호오(好惡)의 감정에서 초월하여 공정히 썼고 우리의 갈 길을 조금이라도 시사하려는 양심적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믿는다.

전후(戰後)의 창이가 쉽사리 아물기 어렵기는 미소(美蘇)는 한 편씩의 민주적 이념을 붙들고 고집하며 그 수합이 극난(極難)한 이때 문학과 예술의 정상(正常)한 복구를 급속히 바라는 것은 무리다. 하물며 현대적 생활건설에 있어 그 기초와 내력이 빈약한 조선으로서 벼락해방을 받고 두서(頭緒)를 못 차리는 혼란기에 있어 문학의 분야만이 초연히 자기의 길을 건실히 걸어가기로 바랄 수는 물론 없다. (중략) 자제와 반성과 융통성을 잃어버린 정치이념에 문학이 —문학인이 휘둘리고 싶지는 않다. 문학인부터가 자유정신에 살아야 할 것이다. 6월 15일.²⁰⁾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

위의 글은 염상섭이 단선반대논조로 구류되었던 사건(1948.4.28.) 이후에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쓴 글이다. 이 구류 사건으로 『효풍』은 약 일주일 간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특정 이념지향이 문학의 목적이 아니라 문학의 자유정신이 그 목적일 때, 문학의 자유정신이란 정치적 의미나 목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워 문학을 도구화하는 것과 문학에 생활과 정치가 문학적 자유정신의 부산적 산물과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정치성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정치 또한 인간 생활의 일부이고 문학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그것이 문학 본연의 ‘자유무애’한 특성이라고 보았다.²¹⁾ 해방 후 미군정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일상화 된

20) 황보, 「해방 후의 나의 작품메모」, 『삼천리』, 1948.7.(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Ⅲ, 소명출판, 2014, 94-96면. 이하 『전집』과 인용면수로만 표기)

21) 염상섭은 “문학은 어디까지든지 자유무애(自由無涯)한 입장에 놓여야 할 것이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코 편향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학이 다른 문화 부문이나 생활 영역에 종속적 존재가 아닌 것”을 강조하며 “자연 인생의 삼라만상이 문학 안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특정 이념이나 계급에 앞서 “문학은 먼저 문학으로서 완성되어야” 한다고

현실이기에 생활을 다름에 있어 정치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문학 활동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저절로 이데올로기 소설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사회와 시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인간이 아니고서야 ‘작가적 고자 상태’로 절필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한 그가 창작한 문학적 산물에 정치성은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드러워질 수밖에 없다.²²⁾ 작가의 문학적 활동조차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가 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은 문단의 침체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염상섭은 그 자신부터 필화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저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자체가 저항이 되어버릴 정도인 당시 상황에 대해 작가적 해명을 한다. 위의 인용 글에서 그는 문단의 침체를 바라보며 그가 처한 당대의 문단을 “침묵의 문단”으로 진단한다.

문학인으로서 정치이념에 구속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자유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는 작가의 신념이 우연히 특정 정치이념과 합치되는 점

주장한 바가 있다. (『전집』, 80면) “문학이 다른 문화 부문이나 생활 영역에 종속적 존재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중략) 문학은 넓고 자유로운 세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염상섭, 「민족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호남문화』, 창간호, 1948.5, 13면)라는 염상섭의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염상섭은 ‘조선문학가동맹’이나 ‘전조선문필가 협회’ 및 ‘청년문학가협회’가 저마다의 민족문학을 주장하였지만 이들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중립의 길을 걷는다. 중간파(중도파)는 당시의 좌우 문학단체의 중간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좌우 합작을 통해 민족분단을 피하고 민주주의적인 민족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문학적 입장을 의미한다. 그는 당시 유행한 ‘민족문학’이라는 용어보다 ‘우리 문학’이나 ‘조선 문학’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함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민족적, 계급적 이념에 종속되는 문학을 거부하며 문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 22) 조남현은 『효풍』의 작중 시간적 배경이 1947년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삼고 있고, 작품 자체는 1948년 1월 1일부터 연재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염상섭이 “시대나 상황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하루하루 일지를 쓰듯이 소설을 쓴 것”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효풍』은 “저절로 이데올로기 소설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조남현은 “『효풍』이 한창 연재되고 있을 무렵에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고, 남쪽에서는 5·10선거에 반대하는 각종 시위와 테러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풍』은 격변의 역사와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조남현, 앞의 책, 297면) 이에 따라 『효풍』의 갑작스러운 결말처리는 작품의 한계가 아닌 당대 상황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 있을지라도 작가가 특정 정치이념이나 그 정세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입장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학적 감흥과 창작의 의욕이 자
 극되고 발랄할 수 있을 리 없는 것”²³⁾이다.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저항을
 하며 특정 이념을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문학에 대한 자유정신을 탄압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작품을 발표하여 얼어붙은 침묵의 문
 단에 균열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가적 저항이고 문학의 자
 유정신을 옹호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작가의 정치적 의도와
 일치할지라도 그러한 의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감춰지는 것
 이 있고 의도적으로 감춤으로써 드러나는 효과가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
 용과 더불어 나타나기에 작품의 서사는 심층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얽힘과 외부현실의 상호작용이 표층텍스트 상에 드리워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굳이 감추려고 의도하거나 드러내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서
 사의 진행상 궁극적인 목표지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나 전
 략과 무관하게 때로는 그 의도나 전략이 노리는 효과에 반(反)하는 의미
 로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해방직후 염상섭이 처음으로 발표한 「해방의 아들」²⁴⁾에서 해
 방 후 염상섭의 첫 장편소설인 『효풍』이 있기까지 그사이 창작된 단편소
 설들은 작가로서 재개를 위한 훈련인 것처럼 단편소설에서 다루어진 주
 제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 『효풍』에서 반복 확장되어 통
 합적으로 나타난다.²⁵⁾ 그 양상을 달리하지만 기존의 작품과 일관되게 나

23) 염상섭, 『전집』 96면.

24) 염상섭, 「해방의 아들」(『신문학』4호, 1946.11, 해방일주년기념작 「첫걸음」에서 개제(改題))

25) 1946년 11월에 「첫걸음」(「해방의 아들」로 개제)이 해방 1주년 기념으로 발표되었고, 1947년
 에 「영당이에 남은 발자국」이 발표된다. 그 후 장편소설 『효풍』이 1948년 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연재되는데, 단편소설 「이합」, 「삼팔선」, 「모략」이 모두 『효풍』이 연재되기 시작한 1
 월에 발표된다. 연재 중에도 「양과자갑」과 「재회」가 발표되면서 해방 직후부터 단편소설에
 서 다루어진 주제나 내용들은 개별적인 모티프가 되어 장편소설 『효풍』에 변이된 형태로 반

타나는 젠더적 특성이 있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부자관계 모티프이다.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생겨난 텍스트의 잉여는 작품과 저자의 ‘혈연적 관계’(filiation)를 약화시키며 잉여의 자리에는 현실이 기입된다는 점에서 작품이 현실을 그려내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이 작품의 무의식적 잉여에 기입되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한다.²⁶⁾ 염상섭은 만주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서울로 귀환한 직후에 발표한 작품에서 작가 자신의 분신으로서 직접적인 ‘나’라는 인물을 내세워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 문제적 상황에 놓인 인물과 그를 대변하고 해명해주는 인물이 부자관계로 설정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가며 서로를 해명해주고 변호하는 역할을 할 때 해명해주는 자는 해명 받는 자가 가진 문제에서만은 떳떳한 입장에 놓인 인물이어야 하며, 그의 해명과 설득이

복적으로 나타난다.

- 26) 김동식, 앞의 논문, 124-128면. 『효풍』의 연재가 시작할 무렵, 작품이 시작하는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 1947년 12월은 좌우합작위원회의 해체 선언이 있었다. 이 일로 12월 20일에 중간과 세력 일부가 모여 김구식을 중심으로 민족자주연맹이 결성되고 민족의 자주독립과 미소간의 친선과 조화를 토대로 독점자본주의 사회도 아니고, 무산계급 사회도 아닌, “조선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건립”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 협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반대하고 좌우 이념으로 분열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조선에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성해나감으로써 근대국민국가로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연재 중에 남한단독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 국가 수립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리면서 여성성과 같은 주변성 혹은 종속적 집단에서 나온 탈식민주의적 요구들이 정체성 정치로 코드화되면서 민족주의 남성정체성은 중립, 일반, 보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실제로는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로서 민족주의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효풍』의 결말부에서 병직이 혜란에게 “자 이렇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은 현실이 작품의 무의식적 잉여에 기입되어 작가가 작품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이전에 현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탈식민주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으나 민족주의와 분간되지 않는 양상으로 귀결될 때 민족성이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초적 형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남성중심주의의 이상 실현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정치적 행위가 구체적인 ‘무엇’으로 나타나기보다 ‘무엇이 아니다’와 같이 실체 없이 허구적인 ‘중간계급’ 소속 자격과 동일시하는 것은 중간계급 자체가 보수적 정체성으로 귀결되기 쉽게 만든다 (아사드 하이더, 권순욱 역, 『오인된 정체성』, 두 번째 테제, 2021, 32면 참조).

납득되기 쉬운 구조로 인물관계가 조성된다. 문제적 인물이 스스로 자신의 뒤틀림에 대해 증명할 수 없거나 증명하더라도 변명이나 자기합리화로 여겨진다면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적 인물을 대신해서 그의 문제적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적 인물의 정황을 참작하여 그를 이해하고 대신 해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요구된다. 『효풍』에서 그 역할은 ‘아버지의 딸’로서 자질을 갖춘 지식인 여성에게 부여된다. 남성작가로서 염상섭에게 시종일관 ‘이상적 여성상’²⁷⁾으로서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여자주인공은 부자관계를 재설정하게 하게 만드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²⁸⁾ 이러한 부자관계 모티프의 변형된 방식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

27) ‘이상적 여성’으로서 여성주인공이 염상섭에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효풍』 이후 장편 소설로 기획되어 『조선일보』에 연재되다 전쟁으로 미완성작으로 남은 「난류」(1950.2.10.-6.25)의 창작시도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남성작가로서 염상섭이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자기를 아낀 줄 알고, 곁 사람을 자기처럼 아끼는” “새나라 새 시대”의 “이상적 새여성”을 그리고자 한 그의 창작의도에서 구체적인 자질 요건이 드러난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인색하다거나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사랑”을 뜻한다는 점에서 염상섭은 윤리적 이타성을 ‘이상적인 여성’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풍』에서 해란은 약혼자인 병직 외에 접근하는 못 남성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음으로써 못 남성들의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동시에 좌절시킨다.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소유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여성과 함께할 때 남성들은 ‘자랑’과 ‘우월감’으로 남성성의 호모소셜리티에서 자기 남성성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효풍』에서 제시된 ‘아버지의 딸’을 통해 드러나는 ‘이상적 여성상’은 여성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남성작가로서 염상섭 개인의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성 환상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작용이나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염상섭, 「작가의 딸-난류」(『조선일보』, 1950.2.2.) 한기형·이혜령 편, 『전집』, 179면 참조.)

28) 염상섭은 민족의 남성주체를 서사의 전면에 세워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는 서사가 설득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해명해주고 인정해주던 기존의 인물 관계를 변형하여 지식인 여성인물을 부자관계 사이에 배치한다. 「해방의 아들」과 「영당이에 남은 발자국」에서 의사(疑似)부자지간이나 친부자지간의 설정을 통한 그들끼리의 적극적 의미 부여를 통한 연민과 위로, 인정과 상찬은 그들 관계 구도 바깥에 있는 같은 식민지배를 받았던 자민족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을 소외시킨다. 이들 훼손된 민족주의의 남성들 간의 폐쇄적 관계는 제국을 상대로 한 자기 취약성을 근거로 민족주의 남성성의 피해자서사를 무조건적으로 합리화 하고 민족의 남성성의 자존을 훼손하느냐 수호하느냐에 따라 같은 민족의 여성과 같은 주변부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과하게 만든다. 훼손된 민족의 남성성의

군정에 의한 신식민지배적 상태를 거치며 훼손된 민족의 남성성의 무력함이 이미 증명된 상태에서 이전의 남성성의 유대 관계 속의 인정과 상찬이 더 이상 설득력을 입증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여성인물이 서사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인공의 주체화 과정으로 새로운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효풍』의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장의 대부분이 해란을 중심으로 할 때 김관식을 초점인물로 전면화하여 다루는 〈거리에서〉-9장과 〈서재에서〉-10장은 ‘예외적인 장’으로 설명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 장인 〈백년손〉-32장 또한 김관식의 서재에서 김관식과 병직의 대면 끝에 남녀주인공이 재회한다는 점에서 김관식을 전면화하고 있는 9장과 10장에 대한 장 구성과 배치상의 기능은 전체 서사와의 구조적 관계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²⁹⁾

북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이것에 복무하는 것이 민족주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앞서 우선 순위에 놓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민족 내부의 결속과 단일화 욕망에 따른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남성성의 자기방어를 위한 민족주의 남성성의 바깥을 향한 폭력 가능성은 그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자민족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합리화하고 정작 제국/민족/아버지를 향해서는 무력한 나머지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제국이 아닌 민족 내부의 만만한 대상을 향해 표출함으로써 제국의 논리를 반복할 수 있다. 『효풍』에서 제3자인 지식인 여성의 등장은 혈통에 근거한 ‘아버지의 이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무력한 남성주인공의 내면화된 반항심과 새로운 정신적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속하고자 하는 새로운 ‘민족’ 개념에 근거한 민족주의의 충돌 사이에서 탈식민주의의 양상이 민족주의적 민주주의와 제3세계 페미니즘을 경유한 민주주의 중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 신선훈은 『효풍』의 〈거리에서〉와 〈서재에서〉 장이 “메인플롯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예외적 장”(앞의 논문, 108면.)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적 차원의 설명에 그친다. 서형범은 〈거리에서〉와 〈서재에서〉 장이 김관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라는 점에서 주목하기는 하지만 다른 장들이 모두 병직과 해란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김관식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를 따로 두 개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앞의 논문, 73면.) 이 두 개의 장은 『효풍』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서사의 구조와 장의 배치에서 내용적인 개연성을 구조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된 채 부각되지 못했다. 중립주의자로서 김관식과 조경원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다루어져 서사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편린만 드러낸다는 서형범(65)의 견해는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

특정 인물이 기존의 염상섭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서사 전체를 장악하는 이유와 서사 진행을 주도하며 맡게 되는 기능과 그 역할을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인물이 서사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겉으로 드러나는 활약 자체만을 본다면 『효풍』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남성작가의 작품을 ‘여성에 관한 텍스트’가 아닌 ‘남성의 성 환상에 관한 텍스트’로 읽는다면 남성작가가 여성인물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여 그들이 그려온 이상적 여성과 현실적 여성과의 괴리를 통해 민족주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내면 풍경을 파악할 수 있다.³⁰⁾ 본고에서는 남성성의 유대로서 부자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로써 서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성인물이 서사의 비중을 크게 차지함으로써 나타나는 텍스트상의 효과에서 남성성의 유대를 재설정하고자

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같은 에피소드 차원에서 다루어지더라도 좌우의 모두를 수용하는 포즈를 취하는 조정원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가 장의 소재목으로 전면화 되지 않은 것과 달리, 김관식의 경우 단독적으로 그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장이 소재목으로 전면화 되어 서사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주의자로서 김관식과 조정원이 아닌, 일제를 비롯한 미국과 소련의 신제국주의를 대면하는 좌우의 어느 쪽도 거부하는 탈식민주의적 중간파인 김관식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위치’가 서사의 전개와 구조상 어떤 기능으로 작용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간과 내에서도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좌우인사 모두를 포용하고 ‘여자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성연대로서 이루어나갈 법한 조정원이 텍스트에서 김관식처럼 장의 소재목을 달고 전면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풍』은 탈식민주의의 과제에서 젠더 문제가 민족문제의 후순위로 밀려나는 방식으로 전체 텍스트가 구조적으로 조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김관식의 탈식민주의적 중간파는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와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탈식민주의가 당대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민족주의 이론과 표면상으로는 분별되지 않는 지점에서 탈식민주의적 민족주의가 실현된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아버지의 규범으로 단일화하려는 민족주의의 충동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나타나 여성 타자화의 담론과 공모할 위험이 있음에 주목한다. 『효풍』에서는 그것이 여성에게 내면화되어 그 규율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딸’만이 주체화를 인정받게 되고 다양한 여성성의 주체 가능성은 차단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정치가 가장 피하고자 하는 정체성정치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로써 여성의 주체화가 한 개인 여성만의 주체화에 그치는 과정을 텍스트적 작용에 따라 파악해보고자 한다.

30)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6, 27-28면.

하는 젠더적 욕망³¹⁾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31) 서사를 주도하는 여성주인공의 등장에 대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주체의 재건을 욕망하는 인물로서 희생 대신 ‘생활’의 전면에 나서는 주체적 여성의 서사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염상섭이 여성주체화에 대한 작가 개인의 지지나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의 구조적인 작용에서는 남녀주인공이 중간과인 김관식과 조정원 중에서 김관식을 경유하여 재결합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구조상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텍스트의 무의식은, 여성인물의 활약을 전면에 내세워 여성의 주체화로 위장하는 듯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우회적으로 남성중심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1)민족주의적 ‘민족’과 2)탈식민주의적 ‘민족’, 그리고 3)제3세계 페미니즘의 ‘민족’으로 민족의 개념과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효풍』은 과정 중의 주체인 남성주인공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한 상태에서 그 한계를 알고 2)단계를 넘어설 것을 예고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그러나 3)의 단계에 진입하려면 ‘민족’은 정체성 정치의 목적이 아닌 여러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에 도달해야 한다. 미소간의 냉전체제와 미군정의 통치를 받는 신식민적 상황에서 탈식민주의는 제국의 논리에 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특징이 유효하게 나타나며, 민족적 대의 앞에서 단일화하려는 민족주의의 총동과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민족적 대의 앞에서 간과되고 탈식민화의 기회를 획득하여 주체화될 가능성을 차단당한다. 이로써 민족주의 남성성의 규범에서 인정하는 ‘이상적 여성상’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한 개인만의 주체화가 다른 여성자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여성성에 대한 남성작가가 제시하는 여성인물과 여성인물의 욕망은 여성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남성작가가 기대하는 ‘여성상’을 통해 남성작가의 결핍과 욕망에 따른 성 환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인공 남녀의 관계는 물론이고 여성주인공과 주변부 여성의 관계는 비대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며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는다(해방후 남성작가와 여성작가가 그려낸 젠더적 특징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미진,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2017 참조). 임미진은 1945-1953년의 문학을 민족국가건설의 대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해방으로 인한 탈식민주의와 근대민족국가건설의 대의는 신국가 건설에서 여성의 자유와 권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민주주의=남녀평등”이라는 도식이 강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여성작가가 재현한 젠더는 고정된 성적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며, 이것은 국가적 법적질서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임미진은 해방 후 소설에서 젠더는 “history”뿐만이 아니라, “herstory”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욕망하게 하는 기제로 기업된다는 점에서 해방직후 남녀평등, 여성 참정권 등의 법제화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호명되었고 여성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각되어 새로운 미학적,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임미진, 위의 논문, 19면). 이 시기 여성 잡지인 『새살림』(군정정보건후생부부녀국, 1947년 2월 창간한 미군정기관지)에서는 「민주주의의 강좌」(1947.2.3.), 「미국 녀권 운동사」(1947.2.3.), 「조선의 민주주의」(1947.10), 「민주주의의 자유와 책임」(1947.11.12.) 등의 기획 연재를 통해 민주주의는 “종족 종교 계급 성의 차별”이

그동안 비판적 시각에서 거론되었던 개연성 없는 결말 처리에 대한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2. 훼손된 민족주의 남성성의 유대와 수치심

일제식민지기를 거쳐 미군정에 의한 신(新)식민지적 상황에서 훼손된 민족주의적 남성자아의 회복과 주체성확립의 과제는 해방 후 염상섭의 소설에서 민족적 남성성의 유대로서 부자관계의 양상 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도된다. 염상섭의 해방 후 첫 작품인 단편소설 「해방의 아들」은 생물학적 부자관계와 의사(疑似)-부자관계의 형성 과정을 병치하여 남성성의 유대로서 부자간의 공의존적 관계가 민족적 남성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방의 아들」에 이어 「엉덩이에 남은 발자국」에서는 민족적 남성성의 회복과 치유의 방식으로 부자간의 연민과 위로가 부자유친적 관계로 나타나며, 무기력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재인식과 적극적인 의미부여를 통한 상찬은 아버지의 존엄과 권위를 세움으로써 민족적 남성성에 대한 회복의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효풍』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부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연민과 위로 및 상찬은 훼손된 민족적 남성성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정신승리일 뿐이라는 회의적 시선과 함께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의 수치심(humiliation)과 민망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장인 〈골동상〉과 2장 〈당세풍경〉에서 서로 듣기 좋은 말로 장단을 맞추고(34) 비위를 맞추며(35) “속빈 인사만 교환”(36)하는 남성들 무리 속에서 “이런 늙은이 축”(21)에 끼어 “따라다니기 싫”(21)다고 생각하며 수치심과 민망함을 느

없는 인간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남녀의 차별을 극력배척”하는 것으로 설파되어 당시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 정치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임미진, 위의 논문, 9면 참조 및 재인용.)

끼는 인물은 여자주인공 김혜란이다.

『효풍』에서는 일제 잔재와도 같은 친일모리배들과 영악한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그 중에서도 특히 부자관계와 같은 혈연관계로 젊은이들과 맺어져 있다. 이들은 병직과 혜란 같은 젊은 세대의 자아 정체성 확립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³²⁾ 그 중에서도 ‘박종렬-박병직’ 부자와 ‘김관식-김태환’ 부자는 생물학적 부자관계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박종렬-김태환’, ‘김관식-박병직’과 같은 이념상의 부자관계가 재설정된다.³³⁾ 혈통보다 정신적 가치나 현실적 실리 내지는 개인적 욕망을 공유한 부자관계의 재결성은 해방 후 염상섭의 근대국가형성의 과제에서 ‘민족/국민’의 개념적 외연을 달리하여 그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부계혈통을 근거로 하는 민족의식에서 바뀌어야 할 당위으로써 신(新)조선은 기존의 민족 개념과 구체제로서 전통 개념과 구분되는, 아직 규정되지 않고 구성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다(A)’라고 규정되지 않고, ‘무엇이 아니다(~A)’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否定) 논리로써 제시된다.³⁴⁾

32) 김경수, 『염상섭 장편 소설 연구』, 일조각, 1999, 204~205면.

33)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06면.

34) ‘A는 A가 아니고 A이다’와 같은 즉비(卽非)의 논리는 염상섭이 말하는 ‘조선학’이 국수주의가 아니라 애국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에 그대로 적용된다. ‘아버지/민족/국가’이자 남성성의 유대 집단으로서 새로운 공동체인 ‘조선’을 설명할 때 궁극적으로 부정되는 아버지(혈통에 근거한 생물학적 아버지)는 구체제적 전통으로서 복고주의, 국수주의, 봉건 잔재적인 민족 개념을 지시하며, 새로 관계 맺는 정신적 아버지와는 그 이름만이 ‘아버지(A)’로서 동일할 뿐이다. 탈식민주의적 과제로서 염상섭의 새로운 민족 개념으로 구성된 ‘조선학’이 구체적 실체로서 제시되지 않고 부정(否定)논리로 제시되는 이유를 다음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주의 그 자체가, 중간파니 자유주의자니 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를 자기의 개념으로 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나오는 날에는—다시 말하면 민족주의가 지금 우리의 이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주의의 내용을 섭취한다든지 포섭한다든지 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전개되는 날이면, 설령 자유주의문학이라거나 중간파문학이라는 것이 규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해방 후의 민족주의문학’이라든지 혹은 ‘신(新)민주주의문학’이라든지 하는 규정 밑에 일치되고 마는 것이리라 생각된다.”(염상섭, 『자유주의자의 문학』, 『삼천리』, 1948.7; 전집 89면). 이와 같은 염상섭의 문제의식에서 염상섭은 새

일체의 식민통치를 겪으며 구체제가 기대고 있는 “전통과 민족의 남성성이 무력한 것임이 입증”³⁵⁾되었고 신식민지적 상황에서 민족적 정체성 확립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난 전통이나 남성성의 이상화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생긴 시점에서 ‘그들’만의 인정과 상찬은 결국 그들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자랑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껍데기뿐인 인사치레일 따름이다. 이는 탈식민적 민족주의의 과제로서 조선의 남성적 권위가 회복되기는커녕 유아적인 인정욕망의 퇴행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 대신 민망함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헤란은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남성들만의 호모소셜리티에서 남성성의 유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남성 못지않게 갖추고 있다. 남성

로운 개념이 구성될 때 기존의 개념에 오염된 언어와 상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기존의 이론과 이념의 규정 아래 귀속되어 새로운 정체성이 기존의 것과 구별이 어렵게 되고 마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염상섭은 기존의 이론이나 이념으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이론이나 이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중간파’에 의한 새로운 ‘조선’의 범주 설정에서 그것의 자의적 이름이 그 이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이름 자체가 마치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오인되는 것을 피하고자 ‘무엇’은 ‘무엇이다’ 대신 ‘무엇이 아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두고 염상섭이 『효풍』에서 구체적인 이념과 작가적 지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작품의 한계로 지적하는 기존 논의들은 염상섭이 새로운 이념과 이론을 기존 개념과 구별 짓기 위한 고민을 타개하는 방식으로 실체로서 이념 제시 자체보다 그 이념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서 ‘부정’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개념과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닌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염상섭은 특정 이념이나 이론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것이 기존의 것으로 귀속되어 왜곡되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론이나 이념이 제시되면 그 또한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자체가 하나의 실체인 양 균질한 하나의 개념으로 이념적 범주를 상정하고 그에 편중되면 독단에 빠질 수 있다. 염상섭은 이를 경계하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는 균형 잡힌 사고방식 자체를 방법론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모색하는 것이 『효풍』에서 중간파에 의해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의 자질로서 ‘공부’하기로 제시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35) 최주환, 「염상섭 소설의 여성과 민족주의 담론의 젠더 이데올로기·여성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211면.

성의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꿰뚫어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성의 유대에서 이 여성의 평가와 인정은 주변부 여성들과 달리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남성성의 사회적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여성이다. 헤란이 부친 김관식을 이들 남성들의 무리 속에서 떠올리는 것은 그녀가 바라본 수치심과 민망함을 불러일으키는 남성성의 유대 집단에서 위엄과 품위로서 남성성을 갖춘 존경할 만한 스승이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만한, 소위 어른 같은 인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자질에 근접하는 인물은 그들 속에 섞여 있지 않는 아버지 김관식이 유일하다. 또한 “늙은이 축”과 달리 “스물대여섯쫓밖에 안 되는 적은 사람으로서는 무게가 있어 점잖”(20)은 병직이 “남자들의 수작”(36)에 끼지 않는 인물로 김관식이 2장에서 언급되기 전 1장에 등장한다. 이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남성성의 유대 집단에 가담하지 않고 고립된 채 헤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인물들이다.

1) 생물학적 아버지와 정신적 아버지

병직의 아버지 박종렬은 우익 청년단체를 후원하고 있지만 한때 좌익 계열 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아들 병직이 화순과 이동민과 같은 좌파인물과 어울리며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유치장 신세를 졌을 때 “자기 아들이 빨갱이 냄새를 피우고 붙들렸다는 것이 가문을 더럽힌 듯이 싫”(77)은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풀려나게 할 수도 있지만 소문으로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며 굳이 나서서 해결하려들지 않는다. 병직이 이복행을 시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버지가 이끄는 우익 청년단체로 의심되는 이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고부터다. 헤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한 병직은 “헤란이가 보기에도 창피스러”(180)움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한 수치심에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테러를 당한 아들을 대 한 아버지 박종렬의 정신적 폭력에 가까운 폭언 때문이다. 박종렬이 이끄

는 청년단체가 그의 생물학적 아들조차 폭행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가치, 즉 사상적 가치를 혈연적 직계 관계보다 더 우선시 할 정도로 그들이 병직보다 정치적인 실리 추구 면에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린 놈들에게 대한 격분이 치미는 것이겠지마는 부친에 대한 반항심도 그만 못지않았다. 흥분한 병직이에게는 부친은 자식의 봉변이 가없다는 생각보다도 자기가 지도하는 청년이 네 따위를 상대로 폭행을 할 리는 없다는 변명부터 먼저 하려 드는 듯시피 들려서 야속하고 분한 것이었다.

“영감두! 저 지경이 됐는데 지금 계제에 그때 말씀은 해서 무얼 하슈?”
모친이 아들 역성을 들며 말을 막으려 하였다.(182)

병직은 자기존재 증명과 해명이 소용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복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종렬이 첩을 들일 요량으로 미국인 사업가 브라운을 끼고 구락부를 만들자는 명분으로 아무도 모르게 마련한 적산 별장에 잠입하여 일행의 이복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고 그 자신도 뒤따라 간 흔적을 남김으로써 아버지의 허를 찌른다. “이년 저년 젊은 계집을 끌고 이목은 번다한 이 좁은 바닥을 싸지르니, …… 인제는 저두 정신 좀 차리란 말요”(182)라고 자신이 이끄는 청년단체로부터 테러를 당한 아들 병직의 앞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박종렬이 한 말이다. 정치적 테러를 당한 아들에게 박종렬은 평소 병직의 못마땅한 점을 지적하고 아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리며 “행세를 잘 해야 하는 거”(181)라고 아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가 아무도 모르게 마련한 적산별장이야말로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비난의 말이 향할 법한 치부를 드러내는 장소였던 것이다.

“두 눈에는 반항과 분노의 빛에 살기까지 돌”(182)면서 테러를 가한 아들 못지않게 “부친에 대한 반항심”(182)을 느낀 병직은 아버지 박종렬

에게는 “자기 집이나 다름없는”(294) 적산별장을 이북행을 준비하는 은신처로 삼아 전 직장 동료이자 좌파계열 신문기자인 화순과 함께 이북행을 감행한다. 이로써 우익청년단체를 이끌며 정치운동을 하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얼치기 빨갱이”(183)라는 사실만큼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모순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인 적산별장에서 일을 벌인 것이다. 병직은 아버지에게 받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그 자리에 다녀간 흔적으로 남겨둠으로써 수치심을 아버지의 몫으로 전가시키고 떠난다. 아들의 안위보다는 지역인사로서 자신을 둘러싼 소문이 나는 것을 더 우려하는 아버지에게 병직은 제대로 거부의를 표시하고 떠남으로써 저항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딸썩부리는 자식”(298)을 혼을 줌 내야겠다는 박종렬이나 박종렬의 청년단체의 모리행각에 동원되는 아들 태환을 “망한놈”(307)이라고 욕하는 김관식을 보건대 아들들은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김관식이 병직을 두고 아들 “태환이와 한 바리에 실을 놈”(20)이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병직이 좌익사상 때문인지, 좌파인 화순과의 연애 행각 때문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이북행을 시도하는 바람에 혜란이 병직의 일에 연루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김관식은 혜란의 말에 의하면, “우리(병직과 혜란)보다도 아드님(태환)을 못마땅해 하시는 양반”(187)이고, 병직의 여동생 희정의 말에 의하면 “바뀌 났으면 좋겠군! 아드님들을 바꾸시지.”(187)라고 할 정도로 한때 병직을 친아들보다 더 인정했었다. 박종렬과 김관식은 자신들의 친아들보다 서로의 아들과 이어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박종렬과 태환이 이미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며 사업과 정치운동으로 이어져 있다면, 김관식과 병직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2) 남성적 시선의 배치와 자존의 회복

『효풍』에서 병직의 생물학적 아버지 박종렬과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자질이 있는 김관식의 상징적 대결 구도가 〈서재에서〉-10장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김관식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기가 폭 까부러지게 거세”(133)를 당한 것에 비유하며 일제 잔재가 청산되기도 전에 미군정에 의한 신식민지적 상황을 우려하며 청년들을 정치운동에 이용하는 박종렬을 비판한다. 김관식은 청년단 이름을 팔아 일반시민이나 가정 부인이 위협을 느끼며 강매를 하도록 종용하는 젊은이들에게 “불알을 떼놓고 다니는 놈들”(132)로 비난하며 해방된 조선에서 장차 새롭게 건설될 민족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들이 ‘기골’과 ‘기상’은커녕 ‘정치 지도자의 노예’로서 정치자금 마련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젊은 여자에게 물건을 강매하고 푼돈을 받아 쥐고는 고개를 숙인다는 점³⁶⁾에서 ‘훼손된 민족주의

36)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그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고도 미군정에 의한 신(新)식민통치와도 같은 지배 아래 다시 농업으로써 민족의 남성성의 무기력과 훼손된 자존심은 같은 민족의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혐오 표출과 같은 타자화의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남성성의 자존심 수호에 위배되는 여성에 대해 혐오하는 심리 기저에는 민족주의의 남성성의 낮아진 자존감에 대한 수치심과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남성성의 방어심리가 작동한다. 이는 자민족 내에 만만하고 취약한 대상을 향한 통제와 간섭을 통한 자기 효능감 확인과 남성성의 우월성에 대한 과시욕과 자랑으로 나타난다. 김관식은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주역이 될 인물들을 청년들로 간주하며 ‘젊은 여성’은 새로운 민족주의의 남성성의 유대를 형성해나갈 청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주변화 되어 배치된다. 장차 민족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점은 한자 집안의 젊은 여자들에게조차 고개를 숙이며 푼돈을 벌고자 강매하면서 남성성의 자존과 거리가 먼 행동을 정치운동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원과 김관식은 같은 중간파라고 명명되지만 미국과 소련을 대변하는 좌우익을 모두 포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조정원이 아닌, 김관식을 초점화자로 한 두 개의 장이 소제목은 달고 텍스트에 전면화 되었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무의식은 여성주의와 민족주의의 담론 사이에서 단일화를 하려는 민족주의의 충동이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여성 주체성을 타자화 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효풍』에서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남성중심적 논리는 「해방의 아들」에서 홍규와 같이 그 규범에 어긋난 자민족 여성에 대해 “못된 년들”이나 “미친년”이라는 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

의 남성성'과 그 자존에 대해 통탄한다.

박종렬과 김관식을 축으로 하는 두 부류의 부자관계의 갈등 속에서 〈거리에서〉-9장과 〈서재에서〉-10장이 김관식을 중심으로 한 제목을 달고 전체 서사에서 전면화 되어 제시된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박종렬과 미군정을 축으로 한 대세를 이루는 남성성의 유대 관계에서 좌파든 우파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념 이전에 조선을 위한 합당한 것이라면 소속된 당파와 무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소속된 당파라 할지라도 조선을 위한 일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병직의 중간과적 입장은 염상섭의 중도주의적 작가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세인 주류 세력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병직은 좌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성의 주류 집단으로부터 '빨갱이' 혐의로 소외된다. 병직이 유흥과 난봉 같은 생활 속에서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다가 가부장제의 상징적 규범과도 같은 집안 제사에 불참하고 화순의 이 끌림에 그녀의 집으로 떠밀리다시피 가버린 〈스왈로 회담〉-8장의 결말

는 대신 '양갈보'와 같은 소문이나 남의 시선에 '그런 여자'로 보일 것을 우려하고 의식하는 여성 스스로의 자가 검열과 통제의 내면화된 시선을 통해 나타난다. 혜란이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의 연장으로 요릿집에 처음 출입하게 되면서 "난생 처음이지마는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아셨다가는 큰일"(25)이라고 생각하거나 베커의 집을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불현 듯 이 병직이의 생각이 난다"(70)든지, 인천행에서 베커의 유희에 넘어갈 것만 같은 상황에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머리를 흔들며 "병직이의 얼굴이 머리 속을 스쳐"(275)가는 것은 혜란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의 규범으로서 아버지와 병직이 가치규범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족적 대의 앞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식민지적 상황 속에 얽매인 제 3세계 여성들의 주체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중간과 중에서도 좌우익 인사를 모두 포용한다는 조정원을 텍스트상에 전면화 하지 않고 김관식을 초점화 하는 소재목을 통해 텍스트에 전면화 함으로써 텍스트의 무의식은 김관식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익의 이념을 모두 거부하는 탈식민주의적 민족주의라는 중간과의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텍스트의 전개가 민족적 대의 앞에서 여성 타자화의 담론과 공모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지점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최정무, 박은미 역, 『한국의 민주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50-51면 참조.)

에 이어서 김관식을 초점화자로 한 두 개의 장이 전체 서사에서 전면화 되어 제시되는 것은 장의 배치와 서사의 전개 구조상 의미심장하다.

병적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부정하고 화순의 이끝림에 이복행을 시도하고 방황 끝에 도달할 곳이 결국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김관식과 그의 서재가 상징하는 가치관의 세계라는 점은 각 장의 배치와 디테일한 요소들의 얽힘 속 작용에 따라 텍스트의 무의식이 작동함으로써 서사구조상의 효과로 드러나게 된다. 9장과 10장은 김관식을 중심으로 ‘줍 아웃’과 ‘줍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당대 현실적 시공간 속에서 인물유형의 특징이 대조적으로 그려지며 텍스트구조상의 대칭을 이룬다. 김관식이 타협하길 거부하는 가치가 통용되는 세상에서 구두담이 소년의 성실한 자세³⁷⁾와 한때 문필가였지만 빈대떡을 부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남원의 양심적인 삶의 자세는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당대 분위기 속에서 걸돈다. “그럼 어쩍니까? 모리를 압니까? 글을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124)라고 말하는 남원을 통해 염상섭이 ‘침묵의 문단’으로 진단했던 당대 문단의 분위기를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³⁸⁾ 정치적 외압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

37) 김관식은 이발소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도 하루 사이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배나 오른 이발비를 내고 나오는 길에 구두담이 소년을 발견한다. 저녁이 다 되도록 손님이 없어 평소 값의 절반만 받겠다는 소년은 절반 값에 구두약 다섯 가지를 발라주고자 관식이 그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고 추운 날씨에 터진 장갑을 낀 손으로 받을 돈의 가치 이상으로 정성껏 광을 내준다. 관식은 이발소에서 느꼈던 불쾌함이 상쇄될 정도로 소년의 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명량한 기분이 든다. 그것은 깨끗하게 빛나는 구두 상태에 대한 만족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장인과 같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고 돈이면 쉽게 양심을 저버리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구두담이 소년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다. 소년이 평소 값의 절반만 달라는 돈을 원래 값으로 두 배 올려서 지불하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이발소에서 겪은 불쾌함을 만회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김관식 방식의 계산법에서 김관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대해 갖는 불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8) 해방후 미군정에 의한 신식민지적 상황에서 영어를 무기 삼아 모리를 취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당대 상황은 2장의 〈당세풍경〉과 8장의 〈스왈로 회담〉을 통해 알 수 있다. 김관식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미국 유학을 가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영어를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양심을 지킨다. “미국 갔다온 이 하이칼라

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비판할 경우 억압받게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절필함으로써 인정할 수 없는 주류 세력에 영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차마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신념과 양심을 지키는 남원과 관식은 서로를 알아보고 인정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각자의 처지를 가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10장에서는 김관식의 서재에 그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유형인 박종렬과 그의 재종이 방문하여 9장과는 인물유형과 공간상의 특성상 대조를 이루며 텍스트의 구조상 대칭된다. 전체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김관식과 박종렬이 등장하는 장의 배치가 대조와 대칭, 순환과 반복에 따라 구조상 치밀하게 결말까지 개연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 박종렬의 적산별장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공간을 다룬 김관식의 〈서재에서〉-10장에서 박종렬과 김관식은 대립각을 이루며 두 아버지 사이의 대결구도가 펼쳐진다. 김관식을 자신의 정치적 실리에 따라 영입하고자 설득하려고 방문한 기회주의자 박종렬이 김관식으로부터 민망할 정도로 무안을 당하고 물러감으로써 두 부류의 아버지 중 김관식의 가치관이 결국 작품의 결말이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까지 방향제시를 할 것으로 부각된다.

박종렬의 적산별장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노신사가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았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가엾어 보였다(125)와 같이, 남원의 눈에 비친 김관식에 대한 인상은 김관식이 남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찬가지로 '가여움'이다. 염상섭은 "정치나 사회생활 내지는 사회운동의 선전 선동에 이용되어 북을 치며 길잡이로 나서는데서 문학다운 문학이 나올 리는 없"다는 점에서 문학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 이용되는 것을 경계했다(『전집』, 80). 문학의 자유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는 작가의 신념이 우연히 정치 이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을지라도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시대와 현실을 담아낸 작품에서 정치성이 발견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테올로기나 정치체제에 휘둘리기 싫기 때문에" "작가적 호오의 감정에서 초월하여 공정히 쓰는 양심적 의도"로 창작활동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당시 상황에서 모리행각에 영합하지 않고 문학을 정치적 선전도구로 팔아 정치세력의 호구가 되는 일에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빈대떡을 부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남원을 염상섭은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그리고 있다.

수치스러운 공간이라면 김관식의 서재는 김관식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박종렬조차 “유통성 없는 학구쟁이”(128)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도 그의 서재에 들어서면 “기를 놀리는 것을 깨닫”(128)게 될 정도로 서재에 들어서는 자는 누구라도 김관식에게 “경의”(128)를 표하고 인정하게 되는 공간이다. 〈유화〉-17장에서 헤란이 병직에게 “아마 지금 세상에 당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집의 아버지나 나밖에는 없을 걸요!”(188)라고 말함으로써 병직의 “오락가락하는 마음”(188)을 다잡고 나아갈 방향으로 안내하는 ‘아버지의 딸’로서 헤란 자신이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로서 정신적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줄 매개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3.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관계와 매개자로서 아버지의 딸

『효풍』에서 부자관계는 민족적 혈통은 공유하지만 실제 부자관계가 아닌 의사(疑似)-부자관계(「해방의 아들」)와 실제 혈연인 부자관계(「영등이에 남은 발자국」)의 변이·확장된 형태로써 생물학적 부자관계에서 정신적 부자관계로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관계 형성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딸’이 등장한다. 헤란의 아버지 김관식은 일제 강점기에 미국유학을 다녀온 영문학박사이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학문적 기품과 성격을 닮은 자식은 아들인 태환이 아닌 딸 헤란이라는 점에서 헤란은 어머니의 성격과 외양을 빼닮은 오빠 태환과는 달리 아버지의 가치관을 이어받은 ‘아버지의 딸’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 ‘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의 소망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아들 같은 역할을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허락되지 않기에 준 남성적인 젠더 속성으로 남성성의 자질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여성이다.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딸은 아들 못지않게 남성

성의 유대에서 인정받는 존재로서 이들의 평가와 인정은 주변부 여성과 달리 준 남성성의 힘을 발휘하여 민족주의적 가부장제 질서의 대리자가 될 자격을 획득하는 인물이다. 다만 생물학적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기실현의 주체가 아닌 생물학적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을 새로운 정신적인 아버지에게로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여 새로운 부자관계의 설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로써 남성자아의 주체성 확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집단에 귀속을 승인 받는 여성인물이다. 아버지의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셨다가는 큰일”(25)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가 검열하는 혜란은 아버지의 규범을 지키고 그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아버지의 딸’로서 염상섭이 기존에 혐오의 대상으로 다루었던 신여성과 달리 작가의 시선에서 시종일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지식인 여성이다.

1) 이상적 여성으로서 인정욕구

병직이 극우청년들로부터 테러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혜란은 병직의 직계가족을 비롯한 집안사람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병직의 고모님과 병직의 여동생을 거쳐 병직의 모친의 호감과 신뢰를 얻고 최종적으로 병직의 부친인 박종렬도 혜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19장) 혜란은 감격까지 하며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병직의 모친의 시집살이를 받고 싶다는 다소 과장된 생각까지 한다. “이 माम을 위해서라도 박씨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생각”(208)에는 염상섭이 그리고자 하는 이상적 여성상이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의 여성과 괴리가 클수록 작가가 제시하는 이상적 여성상에는 작가의 성 환상이 반영된 작가 자신의 욕망이 드리워질 따름이다. 상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혜란 자신의 욕망을 은폐시키고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은 그 필

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돌봄의 주체인 양 심리 투사를 함으로써 은연 중에 선택받기를 바라는 자기 열등감과 그에 대한 수치심을 감춘다.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이상적 여성상’의 의도와는 달리, 작가가 여자 주인공의 진정성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헤란에 대한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자질을 나타내고자 하는 요소들은 기괴한 장면으로 연출된다. 헤란의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과하게 작용할수록 텍스트 상에서는 헤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구원 환상(rescue fantasy)이 나타난다.³⁹⁾ 자신의 희생으로 상대를 기쁘게 해 주고 싶다는 구원적 행동의 이유 이면에는 과대한 이상적 자아상과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고자 하는 열등감이 동시에 숨겨져 있다. 인정욕구의 일환으로 대상을 향한 구원과 희생의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이 그 대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⁴⁰⁾ 자신이 병직을 원하면서 ‘그를 위해서라도’ 화순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마련하는 것에서도 헤란의 구원판타지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

여자주人公이 곤경에 처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계기는 남녀결연을 결정하면서부터다. 병직이 입원했을 때 그를 찾아온 고모님의 조카며느리 감으로 “색시 선”을 보는 것 같은 “테스트”에 화순은 “합격이 되려는 생각도 없”으나 합격이 안 된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자신과 달리 합격이 된 헤란이가 가엾”(198)게 보인다. 고모님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실종〉-19장에서 병직의 모친은 헤란을 “이런 큰딸이 있었으면 할 만치 마음에 꼭 드는 헤란”(207)을 “놓칠까 보아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싶은 귀엽고 의지하는 생각”(207)을 하며 며느리 감으로 여기게 된다. 헤란이 ‘어머니의 딸’로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자기 아버지와는 딴 세상에 사는 모친이 가엾은 생각”(207)이 들면서부터다. 병직의 모친

39) Orly Vaknin, “Rescue fantasies in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al narratives of psychotherapists”,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earch* 21, 2, 2021.6, pp. 442-447.

40) 달린 랜서, 박은숙 역, 『관계 중독』, 교양인, 2018, 117-171면.

을 대하면서 병직의 집안에 며느리가 되고 싶고 “박씨 집안”의 시집살이를 원하는 계기는 병직의 모친이 고생하는 자신의 모친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으면서부터다. 자신의 어머니와 달리 병직의 모친이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곱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헤란은 ‘어머니의 딸’로서의 정체성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틀과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한 것이다. 이대로는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격을 맞출 수 없다는 무의식적 계산은 동일시의 대상을 자신의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꾸어 ‘아버지의 딸’이 됨으로써 병직의 모친과 그 집안에 입성하기 위한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결정을 계기로 헤란은 남녀 인물이 결합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자격 검증을 위한 시험의 과정에서 처하게 되는 수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성에게 없는 남성의 채무를 대신 강요당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헤란이 병직의 집안 며느리로서 병직의 모친과 같은 시어머니라면 기꺼이 시집살이를 원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기 아내를 비롯한 집안사람들에게 호의와 호감으로 인정받는 헤란에게 ‘빨갱이’ 소문으로 인한 그동안의 의심을 거두고 박종렬이 처음으로 호의적으로 말을 건네는 순간, 헤란은 감격까지 하면서 병직과의 사이에 삼각관계를 이루는 화순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영감이 헤란이에게 이러한 말을 붙이는 것도 처음이다. 헤란이는 열떨결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잠깐 고마운 감격과 함께 얼굴이 빨개졌다. 이번 사건이 헤란이로서는 다소 부끄럽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번 동티로 도리어 박씨집 일문의 자기에게 대한 향의가 투철히 달라진 것은 고마운 일이요 내심에 한 자랑도 되는 것이다. 헤란이는 병직이의 태도가 어제 오늘로도 달라진 것과는 반대로 인제는 박씨집 사람이거니 하는 결심과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209)

며느리 감으로 혜란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병직의 모친의 지지 속에서 오히려 혜란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은 작가적 의도와 무관한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용으로 인한 것이다. 작가가 혜란의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자질을 부각시키고 그 진정성에 힘을 실을수록 혜란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감추기 위한 인정욕구의 일환으로 신분상승 욕망이 감추어지기는커녕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병직이나 화순이에게 넘보일까 보아서도 그렇거니와 자기가 박씨집 사람이 된다는 자신이 굳어질수록 인제는 화순이에게 촌보도 양보할 수 없다는 대립적 감정이 노골화하여 가는 것”(210)처럼 혜란은 “화순에게 지지 않는다는 결기”(226)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병직이를 위하여서도 화순이에게 떼어보낼 수는 없다는 결심”을 하며 자신을 병직을 위한 구원자의 자리에 놓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봄과 헌신의 주체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은 혜란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혜란은 박씨 집안 사람이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신감에 한껏 들뜨자마자 그 자격을 시험 당하듯 19장의 결말에서 병직은 종적을 감추고 바로 〈왜 노할 줄 모르나〉-20장에서 병직의 문제를 남겨진 혜란이 채무로 떠안고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병직의 집 응접실 한가운데서 형사의 취조를 받게 된다. 혜란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박씨 집안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만 같아서 혜란을 가장 감격하게 만들었던 박종렬이 형사의 취조 앞에서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 혜란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함으로써 혜란은 병직의 집 응접실 한가운데에서 한순간에 뜬금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한껏 부풀어 올랐던 자긍심이 수치심으로 뒤바뀌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부끄럽고 분하고, 차마 못 볼 욕을 이 집에까지 끌려와서 또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224)에 혜란은 수치심에 낫을 붉히고 가슴을 떨며 속으로 분노할 정도로 병직의 집안 며느리 감으로 인정받은 순간 그 자격에 대한 시험의 첫 관문으로서 수난을 겪게 된다. 병직의 모친이 바로 나서서 스스로 자기증명과 해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혜란

을 대신하여 그녀를 변호하고 해명해준다. 박종렬도 아내의 나무람에 다시 마음을 돌리고 “우리 메누리로 정해 놓았으니 메누리나 다름없”(224)고 “중차 내 집 사람”(224)이 될 사람으로 “경관을 입회시키고 혜란이와의 정혼을 당자에게 선언한 셈”(225)이 된다. 이로써 혜란은 자기 문제가 아닌 병직의 문제를 그가 부재한 자리에서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대리자로서 자격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병직이 해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침묵과 대답 회피로 일관하다 결국 부채로서 드러내는 무기력함에 대해 혜란은 부채가 없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남성인물들은 자신들이 타자화 했거나 결국은 타자화 할, 그러나 자신들을 구원할 존재의 구원 능력을 시험하는 식으로 미션을 제공한다. 〈편지〉-21장에서 병직의 경우 ‘빨갱이’라는 낙인에 대한 무혐의로써 자기 증명과 해명 없이, 실종된 상태에서 혜란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자기네 일행이 이북행을 시도할 때 필요한 정치적 자금을 주어진 시일 안에 구해오되 집안에는 알리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동반한 미션 수행을 요구한다.

자기 일이지만 문제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존재의 구원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남자주인공은 자기 무능력을 여성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들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마치 남자주인공이 자기 문제를 위임한 것 자체가 여자주인공에게 자기와의 결속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마냥 시혜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탁하는 것임에도 마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을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고 승인할 시험 감독관의 자격으로 미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성주인공이 부재하는 20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서사는 남성성의 내부에 있는 모순을 드러낸다. 남성주인공의 문제를 그가 부재

한 곳에서 여성주인공이 대신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고 그것을 담보로 남성주인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텍스트의 무의식상에 드러나는 남성성의 문제에 대한 폭로이자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여성주인공의 이상적 여성으로서 자질을 테스트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는 남성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남성들끼리도 서로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그들 각자가 소유하고자 했던 헤란에게 믿음을 호소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인물들은 헤란을 돕고자 하는 주변부 여성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며 문제 해결에 교란을 일으킨다. 강수만과 이진석, 박종렬 등의 남성들은 헤란의 능력과 신뢰를 담보로 통과외레와도 같은 수난을 제공함으로써 헤란이 시련에 험사리 넘어가지 않는 인내심 강한 여성임을 시험한다. 2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헤란의 수난담이 시작되고, 박종렬, 이진석, 강수만의 순서대로 배신을 한다. 가장 어리고 가장 격이 떨어지는 수만의 배신이 헤란을 비롯한 그녀를 도와준 여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2) 여성들의 타자화와 인정에의 동원

자민족 여성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통해 다양한 여성 주체성을 간과하고 타자화 하는 것은 탈식민적 상황 속에서 발전된 여성주의 이론과 민족주의 담론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을 낳는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어도 그 잔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국주의적 상황에 의해 민족이 좌우익의 이념으로 나뉘어 분단의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논의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⁴¹⁾ 식

41) 해방기 다양한 민주주의에 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유예현의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유예현, 『『효풍』과 해방기 민주주의들의 풍경』, 『현대소설연구』7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민지배를 받은 여성들의 대상화에 대한 비판이 식민지배를 받는 여성의 다양한 주체성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부응하는 민족적 가치를 계승하는 여성만을 인정하는 논리로 전개될 때 탈식민주의는 타자로서 ‘여성’의 이중구속에 눈감고 여성 타자화의 담론과 공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⁴²⁾ 탈식민주의가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았던 식민지와 그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탈식민주의가 도외시했던 ‘여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민주주의의 지향은 제3세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말하는 ‘민족’ 범주⁴³⁾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자면 기존의 가부장제 틀을 무너트리지 않은 채 여성의 주체성을 요구한다면 결국은 가부장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배제를 통한 민주주의로서 민족주의의 여성 타자화의 담론과 공모할 수 있다.

여성주인공의 고행과 수난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한 가네코나 조정원이 ‘같은 여자’로서 공감과 위로를 하고 다 같이 유치장에 갇혀 몸으로 대

42) 최정무, 앞의 책, 50면.

43) 장진선의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았던 식민지와 그곳의 민족에 관심을 가지지만 제국과 젠더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를 드러낸다. 탈식민주의의 ‘민족’ 개념은 민족주의의 민족 개념과 유사하지만 배타적 국수주의와는 달리, 다른 민족의 자결성이나 권리도 자민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 이와 달리 제3세계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민족’은 식민지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여성하위주체들의 다양한 정체성 중의 하나일 뿐이다. 민족의 구성원들이 민족적 대의를 위해 ‘단결하고 협동하며 때로는 충성을 바치는’ 주체적 개념이라기보다 하위주체로서 여성이 가진 여러 정체성 중에서 하나의 특질인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여성이 식민지배체제나 외세에 의해 차별받거나 억압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다(장진선, 「염상섭 『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참조 및 인용). 『효풍』에서는 민족의 남성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딸’이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를 매개한 그 공로를 인정받고, 모든 여성의 주체화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 남성성의 규범이 승인한 ‘이상적 여성’의 자질에 부합하는 오직 한 여성만이 남성성의 유대 집단의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 주변부 여성들은 순차적으로 타자화 된다. 이로써 여성들 사이의 서로 다른 삶과 경험의 다양한 가치를 지닌 식민지 관계 속에 얽매어 있는 제3세계 여성들의 주체가 그것을 단일화하려는 민족주의 담론의 대의적 총동으로 여성성의 정체성이 민족 담론의 하위에 놓이게 함으로써 여성성의 다양한 주체화 가능성은 간과된다.

가를 치르며 여성성의 유대로서 자매애의 실현가능성이 타진된다. 혜란이나 가네코나 진석에게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 “이 쌍둥이 같은 미인들”(232)은 그의 남성성의 욕망을 부추기지만, 이러한 진석의 접근을 “남자 금지!” (233)를 외치며 선을 긋고 혜란에게 병직의 편지를 전해주고자 취송정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는 것은 가네코이다. “요릿집 마담”에게 끌려서 “그런 데”(233)에 대낮에 가기 꺼려하는 혜란의 마음을 짐작하고 가네코는 “나 같은 사람하구 열려서 다니시는 것두 어찌 아실지 모르겠지만”(233)이라고 말하며 병직의 편지를 전해 받은 자신을 혜란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은 “복제기”이고 혜란은 “상제”(242)라고 농담하며 자신과 혜란 사이에 그어진 선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혜란이 지키고자 하는 그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켜주고자 배려한다. 병직의 편지를 전함에 있어 혜란이 도리어 부탁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가네코는 취송정에 혜란이 대낮에 출입하는 것을 “창피하지 않게 뒤로” 모시겠다고 혜란을 안심시킨다. 병직이 편지로 혜란에게 요구한 도피자금 십만 원 중 오만 원을 가네코가 빌려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지만 “해보다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네코에게 응원이나 원조를 받고 싶지는 않”(241)다고 생각하는 혜란의 자존심은 한때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자신이 시혜자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던 가네코로부터 동정을 받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 놓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가네코는 화순과 동행해서 이북으로 도주한 병직을 기다리는 혜란을 자기 경험에 비추어 ‘여자 마음’에 공감하여 위로하고자 호의를 대가 없이 베풀고자 한다. 이러한 가네코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혜란의 시각은 가네코가 “자기 처지가 적막하고 고독해서 이러한 따뜻한 정서를 스스로 향락하는 듯한”(242) 것으로 단정 지음으로써 가네코의 심정을 도리어 동정한다. 이로써 혜란은 가네코와의 관계에서 자기 위치를 도움을 받는 자에서 다시 동정하는 시혜자의 위치에 올려놓는다. 가네코는 자신의 호의를 혜란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신 애인을 가로챈 일은 없다”(241)는 농

답을 하며 자신이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돈을 병직이 화순과의 생활비로 쓴다면 자신이 해란을 돕고도 생색이 나지 않은 일이라며 해란에게 자신은 해란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가네코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기에 선을 넘지 않음을 내비친다. 가네코는 해란에게 병직의 정치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고 조정원 등과 함께 유치장에서 고초를 겪고 풀려난다. 해란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요리 장수도 그런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보다 행세거리던가 싶다”라고 생각한다. 가네코는 결국 요릿집 마담으로서 해란과 동등한 관계에 놓이지 않으며 여성연대로서 자매애의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다. 민족과 계급적 차이에서 새로운 여성성의 유대로서 자매애가 실현되거나 친구와 같은 동등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이들 주변부 여성들은 여주인공의 ‘알과 걸’로서 이상적 여성상을 증명하는 데에 동원될 따름이다.

진석의 첩 채봉의 경우, 해란을 향한 진석의 사심을 눈치 채고 공격의 대상을 진석이 아닌 해란으로 삼아 무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실수를 범하게 된다. 채봉 자신의 이유 있는 직감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이진석과 강수만은 도리어 채봉의 행실을 “소견이 좁은 사람의 “히스테리”나 “무식한 사람의 객설”(154)로 치부하며 그들의 해란에 대한 소유욕과 사심을 채봉의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여 은폐시킨다. 진석과 수만이 채봉을 타자화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그만두려는 해란을 붙잡고자 해란을 추켜세우고 이상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분할통치의 양상이 나타난다. 해란이 “사람 같지도 않은 너의 첩 따위와 겨루고 맞설 내가 아니라는”(154) 생각을 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지만 “누이의 역성이나 변명을 해주려 들지 않는 데에 해란의 마음이 풀리”(146)고 텍스트의 인물관계상 구조적인 작용 속에서 해란은 같은 여자로서 채봉의 진석에 대한 이유 있는 의심에 공감하거나 진석과 수만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기보다 채봉의 무례함과 경우 없는 인격만이 부각된다.

해란이 병직으로 인한 돈 문제로 가네코와 진석의 돈을 빌리게 된 상

황에서 헤란이 평소 자신의 품위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가장 상중하기 싫어하는 부류의 인물들을 상대하며 일을 수행해야 할 때 헤란의 격은 낮아진 상태로 그려진다. 이러한 상태는 한때 진석과 수만에 의해 헤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며 억지로 사과까지 해야 했던 채봉이 헤란에 대해 ‘그깟 년이라고 명명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란이 평소 선을 굽고 혐오적 시선으로 거리를 둘 정도였던 이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런 이들에게 부탁까지 해야 하는 처지는 인물 관계의 구조 속에서 그녀의 품위가 훼손되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헤란이 증명해내야 하는 그 어떤 고행 속에서도 인내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적 특징이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

진석과 달리 가네코는 대가 없이 돈을 빌려주고 헤란에게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고 호의를 베풀며 자매애와 같은 친밀감을 나타내지만, 진석은 “그 약은 계집이 무슨 말을 할까마는 암만해도 수상쩍”(244)다는 이유로 가네코가 어렵게 이끌어낸 여성들 간의 신뢰를 이간질로 교란시킨다. 자기 취약성을 누군가로부터 동정이나 돌봄 받아야 할 근거로 삼지 않고 자기 능동성의 동력으로 삼아 주체성을 발휘하는 가네코는 헤란의 일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어도 헤란에게 자신이 도움을 준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조선의 독립에 한몫 거든 데다 자기가 운영하는 취송정을 광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가네코의 주체성은 자기보다 취약한 누군가를 타자화함으로써 자아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월감을 갖는 남성자아들의 미성숙함과 다르고, 헤란처럼 주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⁴⁴⁾ 가네코는 화순에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44) 일본인이지만 조선인 남성과 결혼하여 법적으로 조선인에 해당하는 가네코는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에서 소외되는 처지였지만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스스로 조선인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인물이다. 가네코는 자신과 쌍둥이 자매처럼 닮은 데다 영어 실력까지 갖춘 헤란을 보며 한때 질투심도 느꼈지만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된 조선에서 조선인처럼 살아가는 일본인 혈통의 요리집 마담으로서 자기가 놓여 있는 현실을 수용한다. 가네코는 자기 취약성을 돌봄 받을 이유가 아닌 타자에 대한 정을 베푸는 방식으로 헤란에게 대가 없는 정신적 물

대놓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헤란의 영어 실력에 질투심도 느꼈지만 이내 자기 처지를 수용하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는 인물에게 오히려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스스로 할 바를 하고 그 뒷일은 책임짐으로써 자기 결정적 삶의 주체가 된다. 이것은 작가적 의도보다 텍스트의 인물 관계 구조상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 텍스트에 무의식적으로 생성된 효과로써 나타난다.

헤란이 주변부 여성을 타자화 하고 가부장제의 규범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을 받는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효풍』에서 여성주인공의 주체화 과정은 가부장제 규범에 부합한 ‘이상적 여성상’으로 인정받은 헤란만이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집단에 진입을 인정받는다. 이 과정에서 헤란이 주변부 여성을 타자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주체화를 도모해나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자아가 여성에게 취하는 방식을 주변부 여성에게 취하는 구조인 것이다. 오히려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채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용을 통해 드러나는 가네코의 주체성은 그 누구도 타자화하지 않고 그 누구의 인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네코의 주체성은, 헤란이 배제의 원리를 통해 그녀만의 고유하고 독보적인 자아 정체성을 인정받고 정체성 정치의 역설적 결과로서 그녀 개인만이 획득하게 되는 주체성과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질적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병직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가네코가 병직의 정치적 활동에 쓰일 돈을 헤란에게 빌려줌으로써 조선의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담한 일에 연루되어 유치장에 갇히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고 기사화 되는 사건을 통해 가네코가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신)조선이라는 민족공동체에서 주체성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주체(subject)는 행위성(agency)을 지님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시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being subordinated)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가네코가 헤란을 도와주는 일로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데 대가 없이 도와주고 그 결과 외부 권력의 통제 아래 검거되고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사건은 자유주의적 정치 형태에서 권력에 대한 예속화(subjection)를 통해 그 공동체에 가담하는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아사드 하이다, 권순옥 역, 『오인된 정체성』, 두 번째 테제, 2021, 16면 참조.)

혜란은 병직의 먼 친척누이가 “우리”라고 자신과 혜란을 같은 또래 여자로서 범주화할 때 자존심 상해하며 “사람이 이렇게도 축갈 수야 있나 분심이 나는 것”(199)을 느낀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병직의 “사촌누이라는 이 여자”가 “시집이 구차해서 그런지 소년과수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옷주제하고 보아하니 병직이 집에서 부엌치다꺼리나 하고 있고 이런 때 허드레로 부러먹는 만만한 젊은이인 듯”(199)하다는 것이다. 그녀의 시댁이나 남편이 변변치 못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하면서 ‘같은 여자’로서 동일한 정체성으로 묶이기를 거부하는 혜란은 이런 주변부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그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받지만, 그녀만의 주체성 확보는 여성 전반에 대한 주체성 확립과 거리가 멀다. 다양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수용이 아닌 그녀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그 규범에 부응하지 않는 자질요소들은 배제함으로써 다양한 여성 정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 탈식민주의적 ‘민족 정체성’의 한계를 내포한다. 혜란은 채봉과 병직의 사촌누이, 일본인 마담 가네코와 여성과학자 출신이자 좌우 인사 모두를 수용한다고 자처하는 중간과 마담인 조정원을 순서대로 거쳐 주변화 하고, 가장장제의 계열을 따라서는 병직의 여동생 희정과 병직의 고모님과 병직의 모친을 거쳐 박종렬의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박종렬은 이복행을 시도한 아들 병직이 삼팔선을 넘기 전에 잡아오도록 아버지의 규범과도 같은 공권력을 동원한다.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붙잡아오고자 하는 박종렬의 이유는 “여자나 끼고 이복행을 시도한 아들을 애 쓸 것도 없”다는 점(298)에서 생물학적 아들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썽부리는 자식은 혼을 줌 내야 하겠다”(298)는 것이고 “부자간에 총부리를 마주대고 앉았지는 수도 없”(298)는 데다 궁극적으로는 “자네댁(김관식의 집)에나 아니 그보다도 그만치 애를 쓰고 무던히 하는 자네 매제(혜란)에게도 남 못할 일 아닌가!”(298)라는 이유에서다. 병직이 아버지가 동원한 공권력에 의해 붙잡힌 순간에 혜란을 비롯

한 그녀를 위로하고 돕다가 검거되었던 여자들이 유치장에서 한꺼번에 풀려난다. 이는 남성성의 유대 관계에 따른 교환가치로서 여성성이 인질 강요되었다가 해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박씨 집안의 가부장제의 통과 의례 제관이자 최종승인자에 해당하는 박종렬로부터 “그만치 애를 쓰고 무던히 하는”(298) 해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란은 박씨 가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상적 여성’으로 단계적으로 인정받아가는 텍스트의 전개구조상 주변적 여성인물들의 타자화 순서는 가장 낮은 혐오적 취급을 받는 채봉에서 병직의 사촌누이의 차례로 시작되고, 상급으로 갈수록 공감과 인정하는 여성들 순서로 진행됨으로서 여주인공의 격을 높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변성이나 종속적 집단에서 나오는 요구들이 정체성 정치로 코드화되면서 탈식민주의적 민족주의 남성성의 정체성은 중립, 일반 보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⁴⁵⁾ 애초에 정체성은 인종, 계급, 젠더 등의 자질값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는 민족주의 정체성 정치이고 이때 민족성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원초적 형태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남성우월주의의 이상 실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간 계급 자체는 “보수적 정체성”으로 나타난다.⁴⁶⁾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

45) 아사드 하이더, 앞의 책, 32면.

46) 아사드 하이더에 따르면, 초기 형태의 정체성 정치는 혁명적인 정치적 실천을 이론화하였지만, 인정에 대한 개인의 요구에 근거한 정체성 정치는 그 개인 혼자만의 정체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이들 속에서 정체성 정치는 집단적 자기 조직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효풍』에서 여성성에 대한 젠더 정체성 정치는 정치를 공동체 참여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자아로,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항하는 집단적 저항과 자매로서 이루어지는 여성연대가 아닌, 부권 사회가 인정하는 아버지의 규범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의 가치를 계승하는 ‘아버지의 딸’의 자질을 갖춘 해란 개인으로서 인정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친다. 해란은 자매에 결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의미를 찾는 인물이 아니다. 여성들 사이에 계층적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해란은 이것을 자기 차별화로서 우위의 자리를 점하는 포즈로 일관한다. 가네코로부터 도움과 위로를 받지만 가네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다 끝내 요릿집 마담이라는 점에서 같은 ‘여자 마음’에 다가선 가네코와는 신분적 격차에

로서 조정원을 넘어서 가부장제가 수용하는 가부장제의 대리자와 같은 여성들의 인정 끝에 가부장제의 두 부류의 아버지 중에서도 박종렬 다음의 자리에 최종심급자로서 김관식이 놓여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사의 진행상 구조적으로 반복·순환적인 패턴 속에서 장의 전개와 인물관계 구조상 텍스트의 무의식이 지시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4.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를 위한 자격 조건으로서 ‘공부하는 인간’

『효풍』에서 김관식의 “멘헬테스트”(336)는 그의 서재에서 치러진다. 자신이 업둥이인 줄도 모른 채 방황하던 오이디푸스가 테베라는 도시에 입성하기 위한 통과시험으로서 맞닥뜨린 스피크스의 수수께끼는 답이 정해져 있듯이, 「해방의 아들」에서 부계혈통을 숨기고 모계혈통대로 살아온 혼혈인 준식에게 홍규가 건넨 질문 또한 답이 정해져 있다. ‘당신은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라는 질문은 준식의 생각이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효풍』에서 김관식을 찾아온 병직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김관식이 병직과의 친밀한 유대를 위해 그저 건네는 질문이 아니다.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나 공부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물을 필터링하고 아무나 자신의 서재에 들이지 않는 김관식의 가치관은 전체 서사에서 반복·순환적으로 제시된다.

1장에서 해란이 학교에서 쫓겨나 경요각에서 일하게 된 이상 영어공부도 할 겸 통역일을 한다고 장만춘에게 말하고 15장에서 병직은 신문사도 그만두고 삼팔선 위에서 해란과 “우리 둘이”(172) 책이나 읽으며 공부나 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병직이 무슨 사정으로 신문사를 그만두지도

서 비롯된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고난의 제공자였던 남성성의 유대 집단과 결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정체성 정치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애초에 비판하고자 추진했던 그 규범을 강화하고 마는 것이다.(아사드 하이더, 위의 책, 52면 참조.)

못하고 버티는 상황에서 회피심리로 운운한 공부일지라도 혜란은 그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에는 이유 불문하고 찬성하고 지지한다. 하지만 병직은 선뜻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번민한다. 회피하기 위한 공부에는 도피 외에 다른 목적이 없고 공부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무엇’을 공부할지 모르기에 “책이나 읽”는 막연한 수준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병직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병직이 부재하는 동안 혜란은 병직이 편지를 통해 부탁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진석에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베커와 함께 인천으로 동행해서 이진석의 손님접대에 동원될 때도 혜란은 생활의 규범과도 같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 하실까’ 염려한다. 그 와중에 베커가 혜란에게 접근하여 진석의 무리로부터 “우리끼리만”(278) 달아나면서 미국유학으로 ‘공부’를 더 할 것을 제안한 것은, 병직이 혜란과 “우리 둘이” 혹은 “우리끼리만 셋방살이를 하면서라도”(337) 공부하고 싶다는 바람과 즉비의 논리로써 병치된다.⁴⁷⁾ 베커가 혜란과 김관식의 방어벽을 허물고 호감을 얻게 되는 것도 ‘공부’를 위한 미국유학행을 제안하고 그도 조선의 전통과 민속학에 대해 ‘연구’하는 ‘교양’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이다. 베커가 병직이 부재하는 동안 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을 보일 정도로 혜란과 김관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베커가 ‘공부’를 매개로 혜란과 김관식에게 접근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병직과 베커만이 혜란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남아 김관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할 자리에 놓이게 된다.⁴⁸⁾ 병직이 부재하는 동

47) ‘A는 A가 아니고 A이다’라는 즉비의 논리는 병직(A)이 부재(~A)하다가 재등장(A)하는 텍스트 전개와 맞물려 1) 병직이 ‘우리 둘이’ 책이나 읽으며 공부(A) 2) 베커가 ‘우리끼리만’ 달아나면서 미국유학으로 공부(~A) 3) 병직이 귀환하여 “우리끼리만 셋방살이를 하면서라도 우선 조선학 공부”(A)라는 식으로 ‘공부’라는 이름의 동일성 속에 차이가 있는 구조적인 패턴을 이룬다.

48) 〈위문개〉-30장까지 인물들의 대략적인 관계는 ‘공부’를 화두로 하여 다 걸러지고 정리가

안 ‘공부’를 매개로 하여 헤란을 둘러싼 다른 남성인물들이 다 걸러지고 베커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가려야 할 상황에서 헤란은 “공부야 할 마음만 있으면 집에서 책을 주문”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것(331)이라는 점에서 미국유학을 무조건 가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세운다. 베커는 남성작가의 민족주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내면의식 작용으로 민족적 남성성의 자존심에 따라 병직이나 김관식이 아닌 헤란에 의해 정리되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결혼문제 때문이 아네요. 첫째는 그 사람의 호의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 호의를 받아서 좋은지 또 하나는 비릿비릿하게 가서 천대나 받으면 무얼 합니까. 공부야 할 마음만 있으면 집에서 책을 주문해다가 보죠. 그래 조선도 원자탄을 만들게끔 되면 구경가마고 했었죠.”

“옳은 말야! 네 말이 옳아!”

매우 딸의 말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중략)

영감은 병직이와는 아주 과혼한 것으로 작정하고 하는 말눈치다.

(332) (밑줄은 인용자)

위의 인용문은 〈유학? 결혼?〉-31장에서 헤란이 ‘아버지의 딸’로서 김관식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순간에 해당한다. 헤란이 아버지의 가치관과 기품을 이어받은 인물로서 ‘공부’에 대한 의지나 미국유학에 앞서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수호의 의지를 확인한 순간 김관식은 흡족해한다. 다만 헤란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는 것은 오직 병직과의 결합에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 같을 때이다. 이로써

된다. 30장에서 헤란과 관련 있는 남자들은 병문안을 핑계 삼아 헤란을 볼 목적으로 헤란의 집을 방문하는데 수만-진석-베커·브라운의 순서로 다녀간다. 이 순서는 서사의 진행과정상 김관식을 거쳐 김관식의 서재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을 매개하는 공통적인 가치관 유무와 그 거리감에 따라 걸러지는 순서와도 같다.

병직의 자존심 수호자로서 텍스트의 무의식상에서 헤란의 역할은 보다 분명해진다.

〈발병〉-29장에서 자기 아들 일로 헤란이 유치장에서 고초를 겪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 박종렬에게 분노한 김관식은 눈물을 흘리며 “애비 안 닦은 자식 없”(311)다며 병직에 대한 분통을 터트린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공부는 안 하고 계집질”(311)이나 한다는 것이다. ‘공부’에 대해서라면 병직 또한 신문사를 그만두고 헤란과 둘이서 책이나 읽으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변심〉-15장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만, 병직이 헤란의 물음에 대답을 회피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텍스트의 무의식은 병직에 대한 선부른 판단을 중지시키고 이해의 여지를 남긴다.

〈유학? 결혼?〉-31장은 헤란이 ‘아버지의 딸’로서 승인을 받고 미국 유학도 허락되면서 헤란과의 관계에서 보다 당당해진 베커가 헤란의 집을 홀로 재방문함으로써 병직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자기증명과 해명이 역설적으로 일어난다. 까다로운 김관식으로 부터 미국유학을 승낙 받았지만 헤란의 “결심”은 아버지의 승낙만으로서 는 것이 아니다. “나 하는 일에 오케이를 해야 할 사람”(333)이 아버지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점에서 헤란에 대한 최종 승인의 자격은 병직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헤란의 ‘결심’은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가부장제의 심급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른 모든 관계에서 주체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헤란이 그동안 발휘했던 주체성의 최종 목표가 아버지를 거쳐 병직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헤란의 병직에 대한 구원 환상(rescue fantasy)의 이면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결심조차 아버지의 승인을 거쳐 최종심급으로 병직을 전제하여 스스로를 귀속시키고자 함으로써 헤란은 병직을 아버지보다 우위에 선 최종결정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이상적 여성의 자발적 타자화로써 텍스트의 무의식은 병직의 위상을 높여놓는 것이다. 헤란의 최종 심급자가 병직이라는 점에서 베커는 병직의 가장 취약한 부

분인 ‘빨갱이’ 혐의에 문제를 제기해보지만 빨갱이일 리가 없는 베커 자신이 인정한 “현대여성으로 존경할 인격자”(93)인 헤란이 “그이는 빨갱이 아녜요”(333)라고 “열심으로 변명”(333)함으로써 병직의 빨갱이 낙인 문제는 인물의 관계 구조 속에서 병직과 재회하기 이전에 모든 인물들로부터 인정받은 자(헤란)에 의해 해명되고 변호된다. 수난과 고초 끝에 모두로부터 인정받은 이상적인 여성 헤란이 자신이 받은 인정과 신뢰를 담보로 병직을 지지하고 변호 및 해명해줌으로써 병직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의 최종 결정은 병직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이 병직에게 귀속되어 구원받고자 하는 포즈를 취하게 되는 역설 속에서 병직의 훼손된 남성성의 자존심은 복구된다.

이로써 병직이 최종승부의 자리에까지 남아 있는 연적(베커)으로 상징되는 신식민지배의 주체를 상대로 직접 경쟁해서 자기증명을 하고 이겨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여자주인공이 남자주인공이 돌아올 자리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손수 다 정리하여 민족주의 남성자아의 자존심을 우회적으로 높여준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사의 결말이자 마지막 장인 〈백년손〉-32장에서 병직이 곧바로 정신적 아버지로서 김관식을 만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해진 답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부자관계 모티프로 돌아와 살펴보자면, 오이디푸스가 직면한 스팅크스의 수수께끼에 정답이 ‘사람’이었다면, 정신적 아버지가 딸 헤란을 ‘아버지의 딸’로서 승인한 지점에서 아버지의 ‘정신적 아들’로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승인시험의 정답은 ‘공부하는 사람(호모 아카데미쿠스)’으로서 자질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병직은 이복행을 시도하고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끼리만”(337) 셋방살이를 하면서라도 “우선 공부를 좀 해야겠다”(337)는 결심이 서게 된다. 병직의 이복행 시도와 귀환을 통해 병직의 정체성은 ‘병직(A)은 병직이 아니고(~A) 병직(A)이다’라는 즉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병직(A)이 부재(~A)했다가 재등장(A)하는 전체

서사의 구조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복행 시도 이전의 병직과 이복행을 시도한 이후의 귀환한 병직은 이복행 시도의 실패여부와 상관없이 ‘병직’이란 이름만 같을 뿐 그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그는 이전의 병직이 아니다. 정해진 방향이 없는 스칼라(Scala)적인 방향의 축적은 나아갈 목표지점이 ‘무엇(A)’인지는 몰라도 ‘무엇이 아닌 것(~A)’만은 알 수 있을 정도의 경험적 깨달음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병직이 다시 아버지의 규범 세계(정신적 아버지)에 돌아온 상태(벡터 값 제로 상태)는 단순한 회귀나 귀환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전과 ‘아버지’라는 이름만이 같을 뿐, 이복행 시도 전 상태인 스칼라 값 제로 상태(생물학적 아버지의 아들)에서 보다 진전된 경험적 축적으로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병직의 회피심리와 반항심에 의한 이복행 시도와 실패의 경험은, 뚜렷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법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벡터적(vector)인 추진력을 장착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새로운 ‘민족/국민’ 정체성으로서 ‘신조선’을 ‘무엇’으로 구성해나갈지 그 ‘방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이름과 개념에 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는 ‘무엇이다(A)’라는 구체적 실체로서 착각하기 쉬운 정의보다 기존의 ‘무엇이 ‘아니다’(~A)라는 부정(否定)정의 논리로 그 외연을 구성해나간다.

조선학(A)은 국수주의가 아닌(~A) 애국주의로서 조선학(A)이고, ‘차차’ ‘우리 아버지의 그늘’(337)에서 벗어나겠다는 병직의 다짐에서 생물학적 아버지(혈통으로서 민족)를 부정(~A)하고 정신적 아버지(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민 A)와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로서 새로운 근대적 민족공동체를 구상하지만, 이 또한 완성된 탈식민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체성 정치의 역설적인 결과로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체성이 소거되고 주변적 여성에 대한 타자화⁴⁹⁾로 아버지의 이름과 그 규범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은 여성이 그 격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이상적 여성’의 자발적 타자화는 남성작가의 시선에서 ‘사랑의 윤리와 도덕’으로 미화됨으로써 여성 그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위장된 남성작가의 성 환상이 투영된 젠더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적 여성의 자발적 타자화에 의해 남성성의 자존심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회복되고 남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남성자아의 주체성을 획득하게 하는 텍스트의 구조 속에서 정체성 정치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비판하고자 추진했던 그 규범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새로운 ‘민족/국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대국민국가 규범으로서 정신적 아버지 또한 ‘아버지’이기에 ‘아버지-아들’이라는 부자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위계는 반복 재생산 될 우려가 있다는 작가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동반된다. 일제잔재와 미군정에 대한 탈식민적 과제 앞에서 『효풍』의 결말은 이상적인 여성의 자발적 타자화로써 훼손된 민족주의 남성성의 자존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에 힘입어 그 어떤 부자관계의 틀로부터도 자주독립한, 위계 없이 동등한 민주시민주체가 되는 길(“우리끼리만 셋방살이”)을 모

49)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한 신식민지적 상태에서 탈식민주의는 민족주의적 식민지 지배를 받는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한 여성젠더의 정체성 정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지만 탈식민지적인 노력의 핵심이 유아화되거나 거세된 남성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된 나머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여성의 다양한 주체성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것은 여성 타자화의 담론과 공모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다양한 주체성의 간과는 지배받는 민족주체의 다양한 입장을 드러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탈식민적 상황 속에서 발전된 여성주의 이론과 민족주의 담론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긴장을 낳는다. 단일화하려는 민족주의의 충동은 가부장적 민족주의의 가치관이 허용하는 규범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자질에 맞지 않는 주변부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남성성의 가치를 따르는 여성만을 인정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인 ‘아버지의 딸’인 개인 여성의 주체화는 전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로써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의 여성들은 식민지적 억압하에서 형성된 그들의 다양한 주체성을 탈식민화할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된다. 여성들 간의 차이를 포용하여 획득된 여성주인공의 주체성이 아니라 주변부 여성을 배제하여 획득된 여성주인공의 주체성은 ‘아버지의 딸’로서 해란 개인만의 탈식민화의 기회를 획득하여 정체성 정치가 극복하고자 시도되었던 바로 그 문제를 더 공고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최정무, 박은미 역,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45-51면 참조.)

색(공부)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작가의 냉철한 인식이 드러난다.

5. 결론

『효풍』은 해방 직후 단편소설인 「해방의 아들」과 「엉덩이에 남은 발자국」에서 부자관계 모티프를 변이·확장시킨 방식으로 그려진다. 부자관계 모티프의 변이형태로서 ‘아버지의 딸’은 새로운 남성성의 유대 관계로서 정신적인 부자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미모의 신여성을 방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려내어 그들에 대한 혐오로써 타자화를 통해 남성성의 자존을 회복하는 염상섭의 이전 작품들과 달리 『효풍』에서는 혜란이라는 인물을 통해 근대고등교육을 받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데다 현모양처의 자질을 갖춘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이로써 여성성에 대한 다른 방식의 재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이상화 방식은 여성주인공의 욕망실현과 주체화를 위장한 남성작가의 욕망충족이기에 작가가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작가적 이상을 여성성의 주체화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남성 못지않은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 이상적인 여성이 단 한 사람의 남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기꺼이 인내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것만이 오직 그 여성의 욕망이길 바라는 남성작가의 욕망과 무의식이 『효풍』에 나타난 젠더적 욕망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에 투영된다. 신여성에 대한 재현 방식이 혐오든 이상화든 남성에 대한 여성성의 타자화라는 점에서 이상적 여성의 주체화로 위장된 여성의 자발적 타자화는 ‘사랑의 율리나 도덕’(102)이라는 명목 아래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용에 따라 구조적으로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인정받은 여성주인공의 무조건적인 이해

와 포용에 힘입어 남성자아는 방향 끝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지대가 보장된다. 서사의 구조와 각 장별 배치 상의 디테일한 요소들의 대조와 대칭, 반복과 순환에 따라 텍스트의 무의식적 작용에 의해 젠더적 욕망이 향할 지점이 뚜렷해진다. 이로써 남자주인공은 결말에서 아무런 자기 해명 없이 김관식의 서재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텍스트 구조상의 개연성이 마련된다.

작품의 결말에서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성립을 의미하는 혜란과의 “새 살림 배포”(337)는 병직의 적극적 선택에 의한 결정이 아니다. 화순이 이복으로 건너가고 병직이 그의 아버지가 동원한 우익경찰로부터 붙잡혀 옴으로써⁵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었으니 인제는”(337)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차선적 타협이라는 점에서 혜란과의 재결합이 상징하는 특정 정치이념 자체는 텍스트의 무의식이 그 해석적 의미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작가가 추종하는 정치이념이나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볼 수 없다.⁵¹⁾ 남녀주인공의 비대칭적 관계가 ‘우리’라는 동등한 관

50) 『효풍』의 마지막 연재분에서 병직이 “우익 경찰”에 의해 붙잡혀 온 것은 남한만의 단독정부와 국가 수립이 결정되어버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재를 시작하기 직전인 1947년 12월 좌우합작이 결렬되고 민족의 분단만은 피하고자 염원했던 현실 속 염상섭의 고투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결정되어버린 것은 병직이 아버지가 동원한 우익 경찰에게 붙잡혀 귀환 후 혜란에게 “자, 이렇게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현이 언급한 바 있듯 “시대와 상황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하루하루 일지를 쓰듯이 소설을 쓴 것”(조남현, 앞의 책, 297)이라는 점에서 “자, 이렇게 되었으니”로 급작스럽게 봉합되는 듯한 결말처리는 작품의 결함이라기보다 당대 한반도의 정세가 5.10선거를 거쳐 단정수립과 대한민국건국까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전개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결말처리는, 정치가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한 현실을 소설로 쓰면 그것이 작가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성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조남현, 앞의 책, 297), 당대 현실 자체가 개연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긴박하게 전개되었던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것이기에 작품의 결함이 아닌 당대 현실적 상황이 있는 그대로 노출된 작품의 특징으로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51) 작가가 “해방 후의 남조선의 현실상이요, 신평속도요, 그들의 정치이념이나 생활태도를 엿보자는 데에 의도가 있을 따름”이고 그가 지향하는 특정 이념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닌 소설(『전집』, 94-96면)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을 작품

계 설정을 다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결말은 근대국민국가 건설 과제에서 혈통 중심적 ‘아버지-아들’의 위계를 상징한 민족정체성을 넘어선 ‘나’와 ‘너’의, 제국과 민족이라는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만”의 동등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의 탄생을 기대하지만, 이것은 ‘차차’ 이루어나갈 과제로서 실제 그렇지 못한 지금 당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염상섭은 침묵의 문단을 중용하는 해방시국의 정치적 억압을 아버지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대담 회피와 침묵과 부재로 그려냄으로써 연재가 중단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그의 첫 장편소설을 완결하여 작가적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텍스트의 잉여로서 침묵과 부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이해하고 수용하는 독자의 존재는 작가로서 염상섭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그의 작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한다. 이에 대한 염상섭의 작가적 결핍과 욕망은 텍스트의 무의식상에서 남자주인공의 침묵과 부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이상적 여성에 대한 성 환상인 젠더적 욕망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해방 후 미군정기 침묵의 문단에서 중간파로서 자기해명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염상섭이 그리는 이상적 여성과 현실적 여성과의 괴리를 통해 탈식민을 지향하지만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민족주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내면 풍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삼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염상섭이 구체적인 ‘방법론’ 자체가 아닌 방법론에 가닿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구체적 실체로서 제시되는 이념이 독단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라기보다 정치적 균형감각에 해당하는 중간파적 입장이 즉비의 논리로 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 1998.

염상섭, 한기형·이혜령 엮음, 『염상섭 문장 전집』Ⅲ, 소명출판, 2014.

2. 단행본

김경수, 『염상섭 장편 소설 연구』, 일조각, 1999.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논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달린 랜서, 박은숙 역, 『관계 중독』, 교양인, 2018.

아사드 하이다, 권순옥 역, 『오인된 정체성』, 두 번째 테제, 2021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6.

프레드릭 제임슨, 『정치적 무의식·사회적으로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서사』, 민음사, 2015.

3. 논문

김경수, 「혼란된 해방 정국과 정치의식의 소설화: 염상섭의 『효풍』론」, 『외국문학』 53, 1997, 1~21(21)

김동식,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민족문학사연구』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94~130(37)

김병구, 「염상섭 『효풍』의 탈식민성 연구」, 『비평문학』, 71~92(22)

김영경, 「해방기 염상섭의 정치·경제의식과 서사의 비균질성—염상섭의 『효풍』론」, 『우리말글』67집, 우리말글학회, 2015. 221-247(27)

김종욱, 「해방기 국민국가 수립과 염상섭 소설의 정치성—『효풍』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60, 101~118(18)

김복순, 「해방 후 대중성의 재편과 젠더 연관」, 『여성문학연구』26권, 여성문학학회, 2011, 225~271(47)

김재용,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8.15 이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9, 191~218(28)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98)

- 서형범, 「염상섭의 『효풍』의 중도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30.2, 2004,
- 신광현, 「텍스트의 무의식: 프레드릭 제임슨의 경우」, 『안과 밖』19, 2005, 99~121(23)
- 신선태, 「염상섭 『효풍』에 나타난 해방기 도덕지층 연구」, 『동악어문학』68, 동악어문학회, 2016, 97~129(33)
- 유예현, 「『효풍』과 해방기 민주주의들의 풍경」, 『현대소설연구』7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309~348(40)
- 이양숙, 「트랜스모던 공간으로서의 서울, 1948년—염상섭의 『효풍』의 현대적 의미」, 『도시인문학연구』10, 69~97(29)
- 임미진, 『1945-1953년 한국 소설의 젠더적 현실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178)
- 장진선, 「염상섭 『효풍』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 제3세계 페미니즘적 관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79)
- 조미숙, 「『효풍』에 나타난 염상섭 서사전략 연구—일제 강점기 작품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84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85~419(34)
- 조형래, 「『효풍』과 소설의 경찰적 기능: 염상섭의 『효풍』 연구」, 『사이間SAI』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81~216(36)
- 최주한, 「염상섭 소설의 여성과 민족주의 담론의 젠더 이데올로기-여성의 재현 양상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191~214(24)
- Orly Vaknin, "Rescue fantasies in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relational narratives of psychotherapists",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earch* 21, 2, 2021.6, pp. 442~447(5)

<Abstract>

The unconscious of text and gendered desire

– Focusing on the father-son relationship motif in “*Hyo-pung*”

Park, Jeong So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ext and the effects revealed through its action, focusing on the father-son relationship motif appearing in Yeom Sang-seop's first full-length novel *Hyo-pung*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n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writer and the action of the text itself, which is unrelated to the intention, the unconsciousness of the text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intention of the writer and appears as a textual effect. In this thesis, in that gender desire is a constructive result of the text's action and its surplus, it is regarded as the unconsciousness of the text overlaid with the artist's desire reflected in the artist's intention or strategy.

In “*Hyo-pung*”, the female protagonist, Hye-ran, takes up a large portion of the narrative, and the male protagonist, Byeong-jik, is absent for several chapters, then reappears at the end, and the problem is suddenly resolved. This way of handling the ending has been evaluated as a limitation that lowers the probability of the work. If we give meaning to the role of women as the leading players in the formation of a modern nation-state, when most of the chapters constituting the entire narrative are centered on the female protagonist, chapters 9 and 10, which deal with Kim Gwan-sik as an exception, are inevitably insufficient. As a bond of masculinity in nationalism, As the bond of nationalism's masculinity and

the variational expansion of the father-son relationship motif, 'father's daughter' plays the role of voluntary otherising as a medium that mediates the spiritual father and son when establishing a new bond of masculinity. As a result, the male writer's desire appears as a gendered desire through the rescue fantasy of an ideal woman who unconditionally understands, accepts and embraces the male protagonist's silence and absence in the unconscious of the text.

Key words: Hyo-pung, Yeom Sang-seop, The unconscious of text, gendered desire, father-son relationship motif, father's daughter

투 고 일 : 2023년 8월 20일

심 사 일 :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 2023년 9월 18일